



15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헌법재판관 김희욱 동문

국내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재직중인 김희욱 동문의 삶과
철학을 들어봤다.

동대신문

금주의

아버가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대신
받지 못하고, 또 자식이 옳지 못한 일을 했을지
라도 아버지가 대신 받지 못한다. 착한 일은 스스
로 복을 받고 나쁜 짓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 들
이는 것이다. 장아함 반니원경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1호 2010년 (불기 2554년) 4월 12일 월요일



1950



正論直筆로 60년을 걸어온 동대신문
앞으로도 自象의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10

일러스트 = 고석현

우리의 넓고 큰 길이어

-동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문 효 치

길을 내고 있습니다
숲과 내를 거느리고
우리의 꿈과 이상을 향해
갈게 넓게 뻗은 길을 내고 있습니다

말과 말을 엮어
이 길을
생각과 생각을 엮어
이 길을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이 길을 달립니다
길은 과거로 갑니다

길은 미래로 갑니다
길은 하늘로도 땅 속으로도 바다 속으로도 갑니다
가서 선인의 지혜를 만나고
후세의 터전을 닦고
온 누리의 번영을 이룹니다

60년을 닦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어가는 120년을 240년을 480년을 960년을 향해
서늘한 달이 이 길위로 떠오릅니다
빛부신 태양이 이 길위로 떠오릅니다
조국과 인류를 비치는 천체들이
이 길위에 떠오릅니다

지워지지도 휘어지지도 않는
끊어지지도 어둡지도 않는
길이 이어서 이어서 뻗어갑니다

문효치 시인은 1943년 전라남도 군산 출생으로, 1966년 우리대학 국문과를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사색>, <서울신문>에 시 <바람 속에서>가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는 시집 <연기(煙氣)속에서 서서>, <무녕왕(武寧王)의 나무새> 등이 있다.

금주의 동대신문

- 4면 : 보도**
- 교원 승진 기준 개편
- 8면 : 창간 특집**
- 사진으로 본 동대신문 60년
- 11면 : 창간 특집**
- 총장과의 대담
- 12면 : 특집**
- 4·19 혁명 '그날의 증언'
- 15면 : 사람**
- 자랑스런 동국인 <4>
김희욱 헌법재판관
- 20면 : 문화**
- 성북동 순례길 탐방

중간고사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92호는 오는 5월 3일자에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동대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축사

창간 60주년 이사장 축사

동대신문의 활동이 동국대의 역사 상식과 정견에 입각한 언론매체 되길



정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먼저 동대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대신문은 일찍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4월 15일 창간호를 발행한 유서 깊은 대학언론의 산 증인입니다.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짧은 의기(義氣)를 바탕으로 정론직필 해온 자랑스러운 동국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젊고 용기 있는 학생기자들이 아니었으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햇수로 60년이면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따져 보아도 장구(長久)한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나긴 세월동안 학업과 언론활동을 병행하며 땀 흘려 일한 기자들이 있었기에 6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종 종정이셨던 성철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문으로 세인(世人)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속전등록> 22권 청원유신(靑原惟信) 선사 편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는 구절입니다.

"이 노승이 30년전 참선을 하기 이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山是山 水是水)'으로 보았다. 그 뒤 어진 스님을 만나 깨침의 문턱에 들어서고 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山不是山 水不是水)'. 그러나 마침내 진실로 깨치고 보니,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었다(山祇是山 水祇是水)'."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 이야기 한다면 '상식(常識)과 정견(定見)을 따라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나치게 굴절시켜 보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활개를 치고 때로는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난무하기도 합니다. 저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는 바로 상식과 정견에서 세상 일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정견은 중도(中道)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중도와 상식, 그리고 정견의 자세야말로 이 시대의 언론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님들과 학생, 그리고 교직원,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유형 무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동대신문은 바로 이들에게 상식과 정견에 입각한 바른 정보를 주는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분열보다는 화합을, 투쟁보다는 합의를, 배타보다는 관용을 우리의 정신적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언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화합하는 동국대학교,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이 앞으로도 이러한 바른 소견과 지혜를 갖고 언론활동에 임해 준다면 동국대학교의 역사도 밝기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0년 성상에 걸쳐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해준 동대신문 동인과 기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창간 60주년 총장 축사

60년 역사와 전통의 동대신문 정론직필의 자세로 발전하는 언론이 될 것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대학의 언론매체의 수준은 대학의 품격을 가능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참으로 중요한 척도입니다. 대학 지성과 정의 구현에 매진해온 우리 '동대신문'은 그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보건대 우리 대학의 정신을 표방하는 역할을 현재까지 기히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60년 동안 쌓아온 '동대신문'의 갈피갈피는 바로 우리 동국대학교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면마다 시대정신에 바탕한 동국인들의 학문과 문화, 의식과 사고, 치열한 고민이 두루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동대신문은 대학의 정통적 본질인 '학문의 전당' 역할을 톡톡히 뒷받침 해왔다고 자명합니다. 대학의 위상에 충실한 아카데미즘 발현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대학지성이 견인하는 저널리즘 속에서 대학 역사의 줄기를 책임져 왔습니다. 동대신문에는 60년간의 대학사회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열정의 가슴으로 느낀 대학가의 모습이 담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냉철한 이성의 머리로 읽어낸 준엄한 자기검열의 논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동대신문의 고뇌가, 대학사회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동국을 거닐어 온 젊음의 용기와 낭만을 마음껏 전개해 온 그 자취의 의의는 큼니다. 동대신문이 현재까지 대학언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검열과 수차례 필화사건을 겪으면서도, 항시 옳은 진리와 양심의 편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정론직필의 소명(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변화하는 자유분방한 언론의 행보 속에서도 동대신문은 양심의 편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정론직필 하는 한결 같은 대학언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으로는 급박하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에 따른 사회 환경 전반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 간의 경쟁,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개인주의의 만연 등 대학 언론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은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곳곳에서 대학 언론이 처한 어려움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대학 언론의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대신문'은 대학 언론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변신과 시도를 모색하고 한층 더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국가족들과 함께 100년, 200년의 역사를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60살 동대신문은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동대신문 그 전통의 맥락 속에서 이제 새롭게 건설해나가는 혁신 동국의 선도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대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축하하며, 1950년 4월 15일 발간사의 마지막 문구로 글을 마칠 것입니다.

"동대신문(東大新聞)이여, 영원히 빛날지어다"

창간 60주년 총동창회장 축사

60년동안 동국인의 구심점 역할 변화를 통해 언론 발전 주도하는 신문되길



이연택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우선 동대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50년 창간 이후로 지금 창간60주년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대신문이 오랜 시간 동안 모교의 얼굴로써, 그리고 동문들에게는 모교와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 동대신문 편집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대신문이 지난 60년 동안 동국 구성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대신문은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구성원들의 독립의 소리와 비판의 소리 모두를 진실 되게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동대신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언론은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 3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고 보도를 했을 때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습니다. 대학 언론 역시 대학 사회 혹은 학내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 신속하게 보도하고 정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듣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입니다. 동대신문이 지금껏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창간 60주년을 시점으로 현재 동대신문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언론의 변화 속도에도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신문의 보도영역이 지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고 대학 신문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본 전제로 하되, 이제는 신문 지면 활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도 언론 역할이 강화되면서 대학언론 보도의 신속성이 강조되고, 어디서든 신문을 쉽게 펼쳐볼 수 있는 신문 지면의 휴대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대신문도 이에 발맞춰 지난 2009년 8월부터 어디서든 쉽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베를리너판으로 판형을 바꾸고, 웹진을 발행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해서 미래 대학 언론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홍보의 시대입니다. 동대신문이 학내·외 구성원들에게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한편으로 외부에는 모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잘해내야 외부에 모교의 위상이 새롭게 인식되고 홍보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보도를 통해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자리잡길 바라며, 모교의 전 20만 동문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대신문을 애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며, 동대신문이 동국 구성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 더욱더 신뢰도와 경쟁력을 갖춘 대학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 이 맛이야!

60년이란 장고의 시간을 견뎌낸 와인은 깊은 향과 풍미가 있습니다. 동대신문도 60년간 시간과 고난을 겪으며 가치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한결같은 동대신문의 깊은 맛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동대신문

동대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축사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세상 본질을 밝히는 등대(燈臺) 되길



김택근
국문 69 줄·동인회장
경향신문 논설위원

동대신문 창간 60주년을 축하합니다.
돌아보면 동대신문은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태어났으니 그것은 험한 현대사의 아픔을 보듬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은 그동안의 명성이 모여 가히 대학신문 역사에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기자들의 고뇌와 노력은 그 속에서 보

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동대신문 60년은 시대 흐름의 복판에서 공동선을 찾아내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은 참으로 가늠하기 힘이 듭니다. 미래는 거리(距離)와 경계(境界)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거리가 점차 사라져 시공의 개념이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삼키는 문명의 포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누구도 확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이 벌이는 속도경쟁은 예측의 한계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그 무엇이 우리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데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작업도 힘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보가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정보가 오히려 인간을 습격하는 시대에 우리 대학신문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사건의 크기와 파장보다 그 본질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최후를 이야기 할 때 처음을 얘기하고, 모두가 현실에 매달릴 때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물이에 평화가 깃드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고 꿈일 것입니다.

동대신문은 매일 새롭게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동대신문 60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깨어있으니 앞으로는 더욱 향기로운 것입니다.

생존 위협 느끼고 있는 언론시장 동대신문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종관
인도철학 79 줄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대표

안타까운 일이지만 1970년대 학번에겐 대학생활의 추억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기도 했지만 교정엔 소위 개발독재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늘 최루가스라 함께 갈려 있었다.

연극동아리(동대 극예술연구회)회원이었던 나도 곧잘 시위대에 합류했고, 그 대가를 1년여의 정학으로 톡톡히 치러야 했다. 나는 동대신문 기자가 아니었는

데도 불구하고 사찰 대상이었다. 연극이 민중을 호도(?)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행사가 주변을 맨돌았고, 대본도 밑줄을 그어가며 제제를 가했다. 그러나 확보사 기자들은 오죽했으랴. 그렇게 침묵의 항변을 하며 10여년의 세월을 보냈을 터이다.

사람 팔자는 타고난 DNA의 영향이 크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졸업 후 언론사에 입사했고,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주화 이후에 언론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고, 치열한 경쟁이 민주화의 자리로 치고 들어왔다.

언론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개발은 또 어떤가. 무가지 신문, 등장과 케이블TV, 그리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이어지면서 이전 모든 국민이 정보의 소비자면서 한편으로 정보의 유통 및 생산자가 되고 있다. 지금의 언론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동대신문도 우리의 삶처럼 굴곡이 많았으리라.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반세기의 역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가볍고, 즉흥적인 삶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폐이퍼는 한물간 구시대 유물로 보일 뿐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 수요층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언론과 언론인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동대신문 되길



최재성
불교 93 줄
국회의원·민주당

먼저 동대신문 창간 60주년을 20만 동국인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대학교는 대표적인 민족사학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동대신문 역시 대학문화의 발전과 우리사회의 진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의 동대신문은 부당한 권력을 향한 젊은 지성인들의 비분강개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통로였습니다. 이런 동대신문의 울림은 자유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었으며, 부조리한 사회를 향한 정의의 일침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담론들이 오고가며 시대정신을 배우고, 진리탐구를 위한 치열한 공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0년 동안 꾸준히 동대신문이란 이름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학업과 취재를 병행하면서 고군분투했던 기자여러분의 열정과 독자들과의 사랑과 관심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배들이 60년동안 도도하게 지켜온 우리 동국인의 양심과 지성을 후배 기자들이 이어받아 계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비판의식을 잃지 말고 역사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환기에 서있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언(苦言)과 직언(直言)을 마다않고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아만 정론직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뉴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다 나은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동대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동대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대신문은 내 젊은 날의 에너지 앞으로도 그 열정 이어 나갔으면



허남걸
교수회장
윤리문화학부 교수

동대신문이 올해 60주년, 사랑으로 말하면 환갑을 맞이했다고 하니 우선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부터 건네야 하는 것이 도리이리라. 먼저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들의 눈을 한 곳으로 쏠리게 만드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대신문을 만들어온 선배기자들과 주간교수들께 두 손 모아 경의를 표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60년의 거의 절반을 동대신문을 읽으면서 학생과 교수의 신분을 이어 오고 있다. 한때는 '달하나 천강에'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다. 시사적인 쟁점을 필자 나름의 학식과 관점으로 버무려 마치 먹먹스러운 무침회 한 접시를 내놓는 것 같아 말 그대로 군침을 삼키며 기다렸던, 내 젊은 날의 감동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동대신문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다른 대학의 친구들에게 보냈던 아스라한 추억도 떠오른다. 이처럼 내가 동악을 오르내리며 언제나 함께 했던 동대신문은 나의 자의식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이제 교수회장으로서 동대신문에 바라고 싶은 말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알고 있다시피 학교당국과 교수회가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면하는 사이가 되면서 동대신문도 언제부터인가 교수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정식기사로 다루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가감 없는 비판적 논평이 최종적으로 제출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듯이 학교 안에서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교수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동국대학교의 미래는 그만큼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동대신문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 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동대신문이 정기적으로 특별기획코너를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더라도 학교와 교수, 재학생 및 동문졸업생들의 대화창구 역할을 맡아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지난 100년과는 달리 앞으로의 100년은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던 화합중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창간 60주년을 맞은 동대신문이여! 더욱 건강하시고 또 장수하시라!

언론인으로서의 균형감각 필요 학우들의 작은 이야기까지 다뤄야



박인우
총학생회장
윤리문화학과

실제로 동대신문을 처음으로 읽게 된 것은 복학한 이후부터다. 그리고 학생회를 하게 되고 나서의 행여 관심 분야의 기사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동대신문을 펼치고는 하였다. 이후로 동대신문은 나의 월요일 등갯길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동대신문과 나의 인연이 이제 3년째 되는 올해, 동대신문이 벌써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동대신문의 역사에 새삼 놀라게 되었다. 사람 나이도 60이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축하를 보내는데 동대신문 60주년을 너무나 축하하며 대학생활 동안 동대신문 창간 60주년을 함께 했다는 것에 기쁨 따를 것이다.

작년 41대 문과대 학생회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직접 부딪게 되었다. 출입기자라 하여 인터뷰를 하러 온다하였을 때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만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항상 무엇인가 말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신문에 나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면서 첫 마음가짐과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자님들을 만났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출입 기자를 만나고 있는데 같은 학생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의 일정에 맞춰준 기자님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보낸다.

매주 늦은 일요일 혹은 월요일 아침 동대신문을 읽다 보면 학생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 기사에 속으로 뿌듯해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읽었을 때는 직접 찾아가 항의도 한 기억이 난다. 물론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사를 쓸 수도 있으리라 이해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 마음이 있었다.

이 글을 쓰기 전날 우연치 않게 손석희 씨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참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될 균형감각과 투철한 보도의식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주고 받는 자리에서 주류 보다 소수, 남성 보다 여성, 개발 보다 환경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동대신문도 이처럼 우리 학우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다루려는 더 많은 노력들을 다음 60년에 기대하며 창간 6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 속 주체성 찾아야 변화기의 성장통 딛고 더 발전하길



이준기
중대신문 편집장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동대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인사와 더불어 대학언론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언론계에서 더 이상 새로운 답문이 아닙니다. 본부예의 재정적준도는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신문을 발행하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지난해 본교 교직원(중앙문화)가 대학본부를 풍자하는 만화를 실었다는 이유로 배부 3시간 만에 강제수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중앙대' 혹은 '중앙문화' 뿐만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중앙문화)는 재정 자립을 위해 학생들의 기부금을 모아 교지를 발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2005년 주간교수와 학생기자단의 의견대립으로 '무제호·무광고' 신문을 발행한 '대학신문', 2007년 주간교수의 인사권 개입과 편집권 다툼으로 인해 기자단의 자비를 건어 무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연세춘추'의 사례는 재정자립도를 확립하지 못한 어떤 대학신문도 완벽히 편집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함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동대신문' 또한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의 보도기사 혹은 기획기사들을 보면 대학 내 주요 현안을 알리는 홍보지로서의 역할과 대학본부를 견제하는 비판적 성격으로서의 신문 두 길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과정에서 2가지 요소를 좀 더 숙고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신문에 '학생들의 생활상'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중·장기 학술기획'으로 학술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학신문이 여타 언론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대학생의 생활상을 담은 대학보도와 심도있는 학술기사이며, 이 두 가지가 안정되어야 대학신문의 위상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신문은 60년의 유구한 역사적 토대를 가진 저력있는 대학신문입니다. 변화기의 성장통을 견뎌내고 역사의 흐름 속에 길이 남을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회전무대

추모?주모!

○...4.19등반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추모비는 찾지 않고 술과 경품만 찾으려 한다는데. 등반의 본래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라. 허나 등반을 가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이요, 가는 학생은 술을 먹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지금 네가 부른 주모가 추모는 아니겠지”

방화범

○...본관 제일은행 앞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일부 학생들의 불량난으로 수리비용 300만원이 차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더욱이 목격자는 있지만 방화범들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어젯밤 오줌 썩 사람 뉴구?!”

흑뿌리 해오름제

○...교수와 학생 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는데... 어찌된 사연인가 알아보니, 해오름제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받은 교수님의 한 말씀에, 어느 한 학생이 반발해 심어 분간 언쟁을 벌였다고. 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원하는 자리에 괜한 언쟁만 불러일으켰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이건 뭐 흑 때려다 흑 붙인 격이네”

연(蓮)과 빛

○...때는 바야흐로 4월이라 캠퍼스 곳곳에 꽃망울이 터지는데. 더불어 부처님 오신날 밝히려 연등에 점등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낮 교정은 빛이 날리고 밤 교정은 연등이 비추니 이곳 동악이야말로 정도(淨土) 세상이라.”

교원 승진 기준 개편 ... 논문 기준 강화

세부전공 기준 다양화(多様化)하고, 연구지원제도는 확대

학내 교수들의 연구의욕 고취(鼓吹)를 위해 승진(昇進) 기준이 올해부터 개편(改編)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수 연구 부문의 순위 하락 이후, 연구 수준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인사기획팀의 강형석 팀장은 “이번 승진 기준의 개편으로 교수 연구 부문 지원이 폐지된 것은 없지만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자 지원의 폭은 확대(擴大)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기준 개편의 골자는 크게 교원 승진 기준과 연구 지원 제도의 변화다.

▲ 교원 승진 기준

교원 승진 기준은 본래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로만 나뉘어 승진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단과대학의 세부전공별로 인문

사회그룹I,II, 자연·공학그룹 III,IV, 예체능V그룹으로 나뉘어 승진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각 그룹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그룹I=국내저명 학술지 1.25편(연간)→국내저명 학술지 1.50편(연간)→국내저명 학술지 1.25편(연간)→국내저명 국제저명 1편(해당직급 기간 내)△자연·공학그룹III=국제저명 0.56편(연간)→국제저명 0.67편△자연공학그룹IV=국제저명 0.56편(연간)→국제저명 0.9편△예체능그룹V=국내저명 1.25편(연간)→국내저명 1.50편

▲ 연구 지원 제도

연구 지원 제도의 경우, 신설 연구 지원 제도와 확대 지원 사업, 현행 사업 유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번 개편으로 신설된 연구 지원 제도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국제·국내 저명 학술지 논문투고 장려금 확대, 동국학술활동 지원, 정년보장교수 특별연구비 지원이다. 특히 국제·국내 저명 학술지 논문투고 장려금의 경우 기존의 국제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주(主)저자에게 지원되던 3백 5십만 원의 지원 금액에 별도로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SCI와 SCIE에 등재된 주저자에게 각각 지원되던 2백 5십만 원, 1백 5십만 원의 지원 금액 외 Impact Factor(논문이 특정기간동안 인용된 빈도 수)지수×50만 원의 공식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원된다. 한편 신입교원의 조기(早期)정착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2010학년도 1학기 신

규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비 지원도 확대됐다. 전계열 신입교원의 논문이 국제저명급 저널에 게재될 경우 기존에 1천만 원까지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1편당 1천만 원으로 최대 3편 신청까지 학교 측이 지원한다.

각 단과대학 세부전공 그룹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계열I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철학윤리문화학부(윤리문화학전공, 독어문화학전공) △법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문예창작학과 △문화콘텐츠학과(문예창작전공) △미술사학과 △교양교육원=그룹I 해당 전공자 ▲인문사회계열II △불교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영어영문학과 △철학윤리문화학부(철학전공) △정치행정학부 △경제통상학부 △사회언론정보학부 △경향행정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학부 △교육학과 △가

정교육과 △광고홍보학과(이론) △교양교육원=그룹 II 해당 전공자 ▲자연·공학계열 III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바이오전공학과 △교양교육원=그룹III해당 전공자 ▲자연·공학계열 IV △물리학과 △화학학과 △반도체과학과 △전자전기공학부 △화학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교양교육원=그룹IV해당 전공자 ▲예·체능계열 V △건축공학부(건축학전공)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 △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공연예술학과 △멀티미디어학과(영상전공) △광고홍보학과(실기) △교양교육원=그룹V 해당 전공자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클래식의 향연(饗宴) 지난 8일 중앙도서관 지하 2층에서 신입생 환영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서는 AK Dream Ensemble 연주팀과 현여울 통기타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4.19 동국인 등산대회 성료

지난 9일 북한산서 ... 3천여 명 참여

‘제 50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 41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9일 국립 4.19 묘지와 북한산에서 개최(開催)됐다.

등산대회는 학생, 교·직원, 동문을 비롯해 동국인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4.19 묘지에서 20분 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오영교 총장은 “모처럼 이렇게 많은 동국인들이 함께 등반을 하려니 가슴이 벅차다. 모두 4.19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동시에 즐거운 산행길

이 됐으면 좋겠다”며 등반 전 운을 폈다.

이번 등산대회에 처음 참가한 박해미(바이오환경과학1) 양은 “우리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4.19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시 희생자들을 좀 더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참가 소감(所感)을 밝혔다. 또 이종석 군(컴퓨터공학1)은 “4.19때 희생하신 동국대학교 선배님들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문 차량 진입로 확장 공사 착공

왕복 3차선으로 확장 ... 5월 중순 마무리

장충단길에서 우리대학 정문으로 들어오는 차량 진입로 확장(擴張) 공사가 시행돼 5월 중순 즈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사는 그 동안 왕복 2차선이었던 학내 차량 진입로를 왕복 3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중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사업개발 2팀의 정경섭 팀장은 “차량을 이용해 학교를 출입하는 학내구성원과 외부 손님들이 편도(片道)차도에 따른 차량 혼잡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차량정체현상이 심각했다”며 “이번 공사는 좁은 차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학내 구성원들의 불편 해소(解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대, 건보공단과 업무제휴협약 체결

불교대학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건강보험 제도 발전 및 산학협력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締結)했다. 이번 업무제휴협약 체결 후, 불교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협의(協議)할 예정이다.

원흥관 엘리베이터 가동(稼動)

8일부터 운행 ... 이동 편리해져

원흥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돼 지난 8일 개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始作)했다.

이번에 가동이 시작된 엘리베이터는 원흥관 2층부터 옥상까지 운행 가능한 것으로 실외에 있는 계단실에 설치됐다.

이번 엘리베이터 신설로 원흥관 내 각 층간 이동성이 편리해졌으며,

지난해 12월 완공된 옥상정원과의 연결성도 높아졌다.

한편 가동식에 참석한 오영교 총장은 “이번에 설치된 원흥관 엘리베이터는 우리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좀 더 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구성원들이 더 즐겁고 편리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1학기 재학생 수요일 불교대강좌

- 시간: 매주 5시 30분~7시00분(1시간 30분)
 - 1부(30분): 불교노래배우기,정신집중 호흡명상, 참선, 요가, 염불(목탁배우기) 등
 - 2부(60분): 불교대강좌

● 장소: 정각원 법당

● 상임법사: 마가스님, 지도법사: 설정스님(대학원 석사 3학기)

● 불교대강좌 방향: 재미있는 불교,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월	일	강좌주제	강·법사	비고
3	10(수)	만해스님과 우리 동국대학교	법타스님	정각원장
	17(수)	노래하는 求道者 무상스님	무상스님	법명선원 원장
	24(수)	야생의 풀에도 부처님 마음이	대안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4	31(수)	아! 달라이라마	조현기사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7(수)	자기표현의 시대	이현정교수	광고홍보학과 교수
5	28(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마가스님	천안 만일사
	12(수)	부처님 오신 참 뜻	월주스님	전 총무원장
6	19(수)	커뮤니케이션스킬과 자기개발	안종상 교수	경영대학 교수
	26(수)	첫 느낌의 착각	이윤영	정신과 의사(경북 안동)
6	2(수)	불교 명상법과 요가	태광스님	불교 명상전문가

불기2554(2010)년 상반기 '불교대강좌' 일정 안내

- ◇ 일시: 매주 토요일, 1부-기도법회(10:00~11:00)
 - 2부-불교대강좌(11:00~12:00)

◇ 장소: 정각원 법당

◇ 대상: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월	일	강좌주제	강·법사	소속
2010	6(음1.21)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3(음28)	예경의 기본 - 천수경1	김호성	불교대학 교수
	20(음2.5)	예경의 기본 - 천수경2	*	
3	27(음12)	불교와 생활인테리어	세준스님	한국종수지리연구원장
	3(음19)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4	10(음26)	불타의 교설 - 아함경1	최봉수	동산불교대학 교수
	17(음3.4)	불타의 교설 - 아함경2	*	
	24(음11)	춘계성지순례		
	1(음18)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5	8(음25)	불교의 수행법 - 행복명상1	마가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15(음4.2)	불교의 수행법 - 행복명상2	*	
	22(음9)	휴회(봉축일 다음날)		
6	29(음16)	불교복지 - 요의 사회화 운동	각현스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5(음23)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2(음5.1)	예경의 기본 - 반야심경1	정병조	문과대학 교수
	19(음8)	예경의 기본 - 반야심경2	*	
	26(음15)	불교예술 - 법배	최종민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7	3(음22)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0(음29)	불타의 교설 - 금강경1	현명관	동국역경원 상임 정의위원
	17(음6.6)	불타의 교설 - 금강경2	*	
	24(음13)	불타의 교설 - 금강경3	*	
	31(음20)	휴 회 (개인정전)		
8	7(음27)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4(음7.5)	불타의 교설 - 유마경1	계환스님	불교대학원장/학장
	21(음12)	불타의 교설 - 유마경2	*	
	28(음28)	불교와 건강 - 요가	정강주	한국요가문화협회 대표이사

학과 동창회장단 초청 학교 현황 설명

학교 발전방안 둘러싸고 의미있는 의견교환의 장 '평가'



학과별 동문(同門)들과 학교간의 직접적인 협력(協力)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학과 동창회장단 초청 학교 현황 설명회'가 지난 8일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약 150여 명의 학과 동창회장단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학교

측이 대학평가, 국제화 전략,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학교 현황을 설명하고 동창회장단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설명회 전 오영교 총장은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동국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대학 발전에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학교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 동문들이 교육 인프라 확충(擴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길 (법65졸)동문은 "우리대학 건물만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학교 건물의 상징성(象徵性)을 강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현재 학내 공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 우리 대학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오홍영(농학66졸) 동문은 "기존의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부지에 있던 모의실험실습농장이 없어졌다"며 "바이오시스템 대학 학생들이 실습 농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실험실습농장이 확보돼야 하긴 하지만, 현재 농장만으로는 부지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개한 명진관 앞, 따뜻한 날씨에 학생들이 햇빛을 즐기며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동약포에서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딜레마

지난 9일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동국인 등산대회가 열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산대회 전부터 학생들은 휴강 문제를 거론했고, 교수들은 각기 휴강한 수업과 휴강하지 않은 수업으로 분분(紛紛)했다. 해마다 열리는 4.19 등산대회, 대학본부 측은 등반 당일의 수업 일정에 대해 전적으로 교수 재량(裁量)에 맡기고 있다. 본부 차원에서 교수들에게 휴강 조치를 권고(勸告)하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대회 참가 인원을 본부 측에서 따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가 내리는 휴강조치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등산대회에 참가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등산대회 전 교수와 학생은 매번 휴강 문제로 혼선(混線)을 빚고 있다.

등산대회일 휴강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데니스 세르반테스(경영학) 교수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등산대회를 결강사유로 얘기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4.19를 학교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념일(紀念日)로 제정해, 통일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양교육원의 한 교수 역시 "등반일 휴강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도 출석률이 절반도 안 된다"며 "본부 측에서 등산 참가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19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대학 선배들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4.19등산대회가 '휴강 여부'의 문제로 비화됐을 뿐 아니라, 확실한 휴강 혹은 수업을 결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4.19등산대회는 수십 년 동안 내려온 학교의 전통인 만큼, 따로 휴강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휴강"이라는 입장이다.

4.19혁명의 뜻을 되새겨보고자 마련된 행사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휴강이나, 수업이냐의 기로에 서서는 4.19혁명을 추모할 수 없다. 4.19를 추모하기 위해서는 선(先)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교육문제 요구안 선포식

'교육환경 개선 요구안' 학교 측에 전달



제 42대 총학생회가 지난 7일을 '민족통국의 날'로 정해 교육문제 요구안 선포식과 교육문화제를 거행(擧行)했다.

총학생회는 교육문제 요구안 선포식을 팔정도에서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構成), 입학정원관리 시스템 수정, 학사행정 조정위원회 구성 등 '교육환경 개선(改善)을 위한 10대 요구안'의 내용을 발표(發表)했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운동장 공간 변경과 바이오시스템대학의 일산캠퍼스 이전 등은 학교 측이 학우들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한 단독 결정"이라며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과 학생회 모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규량 사범대 학생회장은 "입

학금이나 계절학기 등록금이 인상됐지만 증가한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등록금 책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바란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선포식을 지켜본 이석재(법4)군은 "운동장 공간문제와 같은 일은 공공사안이니만큼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선포식을 마무리 지은 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홍성조 학사지원본부장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는 만해광장에서 교육문화제가 진행됐다. 교육문화제에서 박인우 총학생회장과 황우상 부총학생회장은 한해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는 고사를 진행했고, 제 42대 총학생회의 출범(出帆)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박인우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삶에 고착화(固着化)되어 느껴지지 않는 주위의 문제들을 이제는 풀어내고 풀어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총동창회 100명에게 '장학금'

총동창회가 모교 후배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총동창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7일 본관 로터스 홀에서 열렸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각 학과당 한 명씩 총 100명(서울캠퍼스 64명, 경주캠퍼스 36명)의 학생

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이연택 총동창회장, 구자선 부회장, 최순열 학사부총장, 학과 및 대학원 동창회 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 교수장학' 1,540만 원 모금

불우한 환경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돕고자 바이오시스템대학 교직원 약 23명이 1,540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募金)했다.

장학금은 바이오시스템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받은 성과급 중 10%를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것이

다.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사운영실의 한 관계자는 "장학금 1,540만 원은 빠른 시일 안에 대외협력단에 전달해 이번 학기 말 혹은 다음 학기 초까지는 학생들의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초청 특강 오는 13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오는 13일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어떻게 실현(實現)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의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

행되며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이 참석 가능하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와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대표를 역임(歷任)했으며 올해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부임(赴任)했다.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4월 정각원 행사 안내

정각원에서는 불기2554(201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마음을 동국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모든 동국인과 일반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4월 교직원 정기법회	수계대법회	연등점등식	연등달기
행사내용	- 일시: 2010년 4월 12일(월), 17시 - 장소: 정각원 법당 - 법사: 박성배 (뉴욕 스토니브룩대 교수)	- 일시: 2010년 4월 14일(수) 오전(1차) - 10:00~12:00 오후(2차) - 14:00~16:00 - 장소: 정각원 법당 - 대상: 재학생, 동국가족, 일반인 - 접수: 유드림스 신청, 방문신청 (~ 4.12까지 접수)	-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18:30 - 장소: 팔정도 앞 - 내용: 교정 전체에 장엄된 오색연등에 점등	1. 정각원 법당내 봉축 1년등 권선 - 기간: ~ 2010년 5월 21일(금) - 동참금: 10만원 이상, (*법당밖 5만원 이하) - 방법: 유드림스 신청, 방문신청 2. 만원! 나눔의 행복, 재학생 '소원성취' 연등달기 권선 - 기간: 2010년 4월 14일(수) ~ 5월 21일(금) - 동참금: 1만원 이상 - 방법: 정각원사무실, 연등신청부스 신청등 표에 소원 쓰고 교정 연등에 직접 달기 ※ 모금된 보시금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환원됩니다.
비고	당일참여 누구나	사전접수	당일참여 누구나	사전접수 당일참여

다시 읽는 창간사

동대신문은 창간 이래로 현대사의 격변속에서 민족사학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왔던 동학의 역사속에서 동국인의 열린 귀, 바른 입이 되었다. 창간사를 통해 창간 정신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I. 대학은 크나 큰 사회속에서 문화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이라는 말은 아니다. 항상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사회의 무지를 계몽하고 사회의 불행에 해부하며 사회조직의 모순을 검토하고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한 설계도의 작성을 맡고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권위는 엄연하며 대학의 위신 실추는 곧 국가의 흥망에 영향(影響)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그 나라 발전의 상징이며 희망의 상징이다. 숨은 정열이 대학에서 약동하고 비약의 터전이 대학에서 닦아진다.

II. 억압적인 언론정책 밑에서 완전히 우매(愚昧)화한 민중이 중세봉건사회에 있어서 농노(農奴)적인 신분관계를 타파하지 못하고 위정(僥倖)의 희생이 된 것은 오로지 철통같은 봉건사회조직과 그의 엄중한 감시 밑에서 말과 행동의 자유를 박탈(剝奪)당한 소이(所以)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하한 봉건사회조직도 자체 내에서 숙성해 가는 경제조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세력의 대두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고 인간의 해방이 왔다.

소위(所謂) 정치적 민주주의(政治的民主主義)가 사회발전의 유일한 「교울」, 인양 고창(高唱)되었던 시대로부터 언론의 자유는 인간(人間)의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서 신봉(信奉)되었으며 「따-크 에이지」(암흑의 시대)에서 광명(光明)의 시대가 전개되고 인류사회의 진전(進展)은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나, 유독 사상의 진보는 항상 그의 앞장을 섰었고 언론사상의 신창(伸暢)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문(新聞)이었다.

고립(孤立)되고 폐쇄된 사회에서 세계적인 연관을 가진 사회로 변화에 따라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나날이 변화해가는 세계의 정세를 민중에게 보도하고 또는 민중의 일반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전 세계적인 복리를 도모함에는 신문이 항상 선봉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것이다.

III. 진리의 전당인 대학(大學)에 있어서 제기되는 명제는 일상 직접 인류 사회생활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이곳에 대학생활의 생생한 움직임이 있고 부절(不絕)한 향상(向上)이 있으며 영원한 신의(信義)가 있는 것이다. 대학을 마치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이 그릇 해석되었던 옛 시대의 관념에는 자그마치 변천을 가져왔고, 진리의 탐구와 그의 실천의 제일 전사(第一戰士)인 학도는 사회생활(社會生活)의 중심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완전히 사회와 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면서 진리의 탐구란 자기 독특한 사명을 완수하는 곳에 대학의 대학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나라에 해방이 온 지도 어언 육개 성상(六個 星霜), 불행히도 모든 학원은 스스로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혼란속에 휩쓸려 그 혼란을 조장하는 제 일인자적(第一人者的) 활약을 어김없이 해왔다. 폭력과 모략과 중상이 학원을 뒤덮고, 가장 명량하고 희망(希望)이 있어야 할 곳에 암운(暗雲)이 저미(低迷)하며, 진리의 탐구에 대한 의욕은 점차 사라져가고 퇴폐와 무기력과 방종만이 제멋대로 발호(跋扈)했다. 민족의 탄생과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태풍은 일과(一過)했고, 새로운 싹이 트며 사라졌던 희망은 소생하고, 잃어버린 명랑은 옛터로 다시 찾아 들며, 경박은 물러서고 진지(眞摯)가 나타났다. 스스로 더듬어 갈 「코-스」는 결정되었다. 이제는 그 「코-스」를 되도록 빨리 뛰어 「교울」에 돌진할 따름이다.

IV. 이와 같은 때 본 대학신문(大學新聞)의 창간(創刊)을 보게된 것은 꼭이 나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약간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대기(大器)는 만성(晩成)이라고 한다. 그러면 본 대학신문(大學新聞)이 지니고 나온 사명(使命)은 무엇인가.

진리(眞理)의 전당에서 유동하는 사회의 흐름을 감각한 학도(學徒)가 스스로 연마한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발표하고, 민중의 지도자로서 자부하는 학도가 사회의 여론을 지도하고 대중을 각성시키는 목적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발표기관(發表機關)이며 신문(新聞)만이 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본 신문발행(新聞發行)의 목적에 학(學)의 온상으로서의 대학(大學)의 본질(本質)을 천명하고 민족문화선양에 기여하며, 또는 인류(人類)가 주재하는 역사진행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학생(學生)의 생득적(生得的)·경험적 관찰력·추리력의 함양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저간의 사정을 말하며, 본 신문(新聞) 발행의 취지서(趣旨書)에 이조(李朝) 말엽의 정치의 부패와 왜제(倭帝) 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수난이 정치적 실망(政治的 失望)·실의(失意)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민중의 생활영위의 방편으로서 신봉된 아이롱(啞耳聾) 주의를 원인하므로 오늘의 역사의 변화가 제시하는 운명 공동체의 이념(理念)을 구현하고 국가의 부강, 민족경제의 재편성, 민족문화(民族文化) 향상(向上), 사회복리(社會福利)의 증진을 기도(企圖)하는 우리의 행동강령을, 중앙에 국제적 신의(信義)에 호소하고 전민족(全民族)을 조국전선 규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아이롱(啞耳聾) 주의를 타파하고 민족언론(民族言論) 보도지의 과감한 진출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음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대학신문(大學新聞)이 이와같은 사명을 완수할지는 미지수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신세대(新世代)의 주인으로서 연학(研學), 내성(內省), 사색창의(思索 創意), 명상(冥想) 그리고 봉사(奉仕)를 선명히 반영할 수 있는 프리즘의 분석을 표방으로 삼는 것과 관찰(觀察), 비판(批判)에 예의노력(銳意努力)할 것이 「동대신문(東大新聞)」의 본유(本有)하는 일반적 사회성(社會性)과 사학적(私學的) 독자성(獨自性)을 발현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 동대신문(東大新聞)이여, 영원히 빛날지어다.

동대신문 60년 사(史)

시대정신으로 뭉쳤던 60년

1950~60년대

동대신문의 역사는 1947년 가을 창간된 동국월보(東國月報)로부터 시작됐다. 동국월보는 타블로이드 판형 4면으로 제작됐으나 필화로 파문을 일으켜 발간이 중단됐다. 이후 50년 4월 15일, 대관 4면의 동대신문 창간호가 발간됐다. 그러나 2호 조판 중 6.25 전쟁의 발발로 또다시 발간이 중단됐다. 이후 부산 피난지에서 타블로이드 4면으로 동대신문 2호를 52년 6월 속간했으나, 당시 기사에서 문제가 발생해 배부가 중지됐다. 전쟁 후

이 본관 1층에서 학생회관 지하 1층으로 옮겨졌다.

70~80년대

75년 4월 15일에는 본지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동대신문 논설집 「대학의 이상」을 발행했다. 79년 3월 총무를 편집국장제로 승격했다. 80년 4월 창간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송건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사회 변동과 신문의 역할」, 류재현(서강대 교수)의 「70년대 대학신문의 반성」 등의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어 8월에는 동대신

문에는 국내의 대학신문전시회 개최 및 「제5회 보도사진전」을 개최했다. 동시에 전국 고교신문 및 교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 13일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89년 3월 제 1012호(3월 1일자)부터 전면가로 쓰기 체제로 변경했다. 또 여초 김응현 씨가 「광개토대왕비문제」로 제작해준 제호 서체로 변경했다.

1990~현재

92년 5월 6일 지령 1200호가 발행됐으며 같은 해 10월 7일 「소나기 사건」이 발생했다. 97년 9월 1일 동대



▲동대신문 창간호



▲동대신문 지령 1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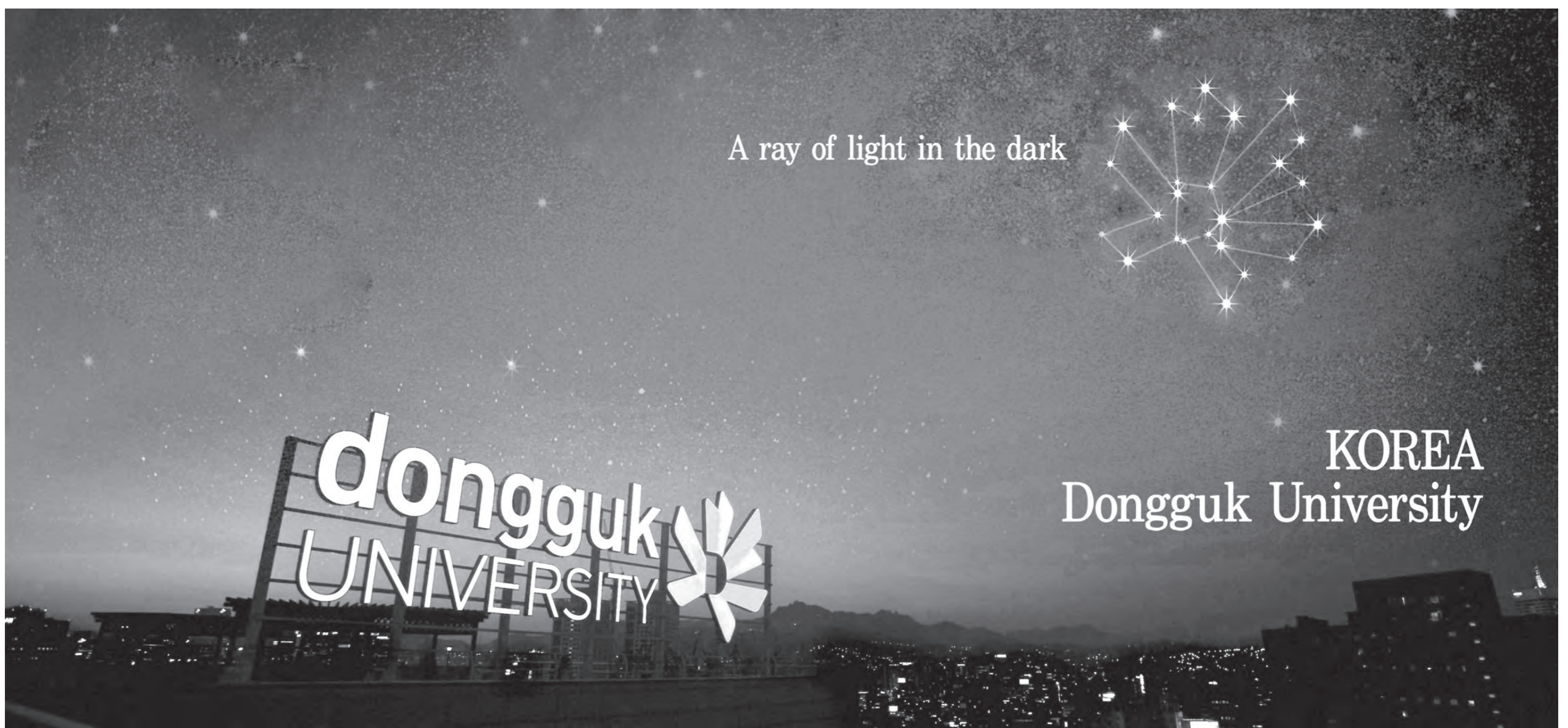
▲베를리너 판 동대신문(1490호)

1953년 11월부터 타블로이드판 「동대월보」가 속간됐다. 이어 55년 2월 20일 발간된 제 19호부터 배대판 4면으로 증면됐고 그 해 7월 「동대신문」로 제호가 바뀐 데 이어 9월 다시 「동대시보」로 제호가 변경됐다. 59년 3월 16일 자로 지령 100호가 발간된 데 이어 그 해 10월 구내인쇄소에서 신문제작이 시작됐다. 60년 10월에는 주간제를 두고 초대주간에 정태용 동문이 취임했다. 이듬해 7월 5일에는 「개져 가는 운동장의 꿈」이라는 제목의 호외 제 1호를 발간했다. 62년 7월 6일에는 제호가 「동대신문」으로 변경됐다. 63년에는 「동대신문사 학술상」이 제정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령 500호가 71년 10월 발간됐으며 이듬해 2월 사무실

문 학술상 수상작품을 모아 「대학의 지성」을 발행했고 11월에는 본사가 꾸준히 모아온 사진을 중심으로 「제1회 보도사진전」을 개최했다. 81년 9월 15일에는 지령 800호가 발간됐다. 이듬해 6월 지령 825호 중 시위관련기사로 필화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10월에는 「제2회 보도사진전」이 개최됐다. 86년 2월에는 「파쇼헌법철폐」기획으로 필화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동대신문사 학술상」 모집분야 가운데 창작문학부문을 독립시켜 「동대문학상」을 제정했다. 1988년 8월에는 지령 1000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칼럼선집 「달하나 천강에」 및 동대신문 축쇄판 제1권(1~181호 수록)을 발행했다. 이어 9

신문 제호를 좌측 상단으로 이동했다. 99년 3월 1일부터 12면과 8면이 교차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첫 면과 끝 면이 컬러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또한 제호를 한글로 변경하며 우측 상단으로 이동했으며 인터넷 신문 기사서비스를 제공했다. 2004년 2월에는 학생회관 지하 1층에서 V동 1층으로 이전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지령 1400호가 발행됐다. 2007년 2월 대학본관 1층으로 이전했으며 같은 해 9월 동국미디어센터 대학미디어팀 산하기구로 개편됐다. 2009년 8월 24일 자로 베를리너 판 12면으로 판 변형 및 증면을 실시했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사건으로 본 동대신문 60년

전쟁과 독재의 검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동대신문

필화사건으로 신문 압수, 독재정부의 탄압에 벽돌신문 발행 등 아픔 겪어

동국월보와 동대신문

1947년 가을, 박종선, 정익용 등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문창간 준비가 이뤄졌다. 타블로이드 4면 '동국월보'의 창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게재된 몇 편의 논문이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점과 정 동문이 쓴 교수 프로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배부되지도 못한 채 압수처분을 당하게 된다.

당시 전국 38개 대학 중 최초의 대학신문이 될 수 있었지만 문학부 내에서 만들어져 완전한 신문의 형태로 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창간호라 이름 붙여진 신문은 1950년 4월 15일 당시 중앙학생회 회장이었던 신국주와 이외운, 박내춘, 이종한, 오봉영 등 신문동호인들이 유산되고 만 '동국월보'의 뒤를 이어 만든 대만 4면의 동대신문이다.

창간호를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대신문이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해방 직후 붓물터지듯 급격히 증가한 좌우의 사상의 혼란과 그로 인한 좌익사상에 대한 탄압은 교육의 현장에서도 가시화됐고 사상이 아닌 사실보도에서 조차 자유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 중 만든 제 2호

1950년 6월 동대신문 제 2호 조판 중 6.25 전쟁이 발발한다. 결국 본지 2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1952년 6월 발간하게 되지만 조연현 동문의 '동국대학교 나'라는 글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서 불태워지고 만다.

동대신문은 그해 10월 1일 발행된 타블로이드 4면 '동국월보'로 간신히 명맥을 잇는다.

이 신문 역시 1면에 게재된 이형기의 논문과 학장의 격려사 이종출의 '경사진 항구'라는 시가 말쑥이



▲ 동대신문 제 2호

되어 중단되고 11월 20일 발행된 동대신문이 실질적인 2호가 된다. 결국 1953년 4월부터 양주동 교수의 지도하에 3호가 속간되면서 동대신문은 기반을 다지게 된다.

한편 동국월보는 1955년 7월 7일자 '동대신보'로 제호가 바뀌고 같은 해 9월 5일 '동대시보'로 제호를 변경한다. 현재의 동대신문이라는 제호는 200호(1962년 7월 12일자)부터 쓰이게 된다.



▲ 호외 제 1호(62년 7월 5일)

깨져가는 운동장의 꿈

5.16 군사쿠데타 이후 장충단 쪽에 느닷없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작공됐다. 운동장이 없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대학으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중앙도서관 남쪽 장충단 공원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게 당시 학생들의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꿈의 자리에 정부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물을 착공한다는 것은 전교생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동대신문사 기자들이 밤 새워 만든 동대신문 호외가 아침 일찍 뿌려지며 전교생이 데모를 벌이게 된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동대신문의 호외는 대학신문 사상 최초의 호외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어진 건물 이후에 본교가 인수한 혜화관이다.

검열 속 빛난 재치

1964년 4월 24일자에 4.21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와 관련하여 '다시 이 거리에 피를 뿌리다니'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3장이 문제돼 학교당국은 신문을 압수, 소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해 8월 7일 6.3 사태로 비상계엄이 내리자고 계엄군이 대학에 진주한다.

동대신문도 어김없이 전면적 검열을 받게 된다. 그 당시 '필동고지'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캠퍼스가 군인들에게 점령당했음을 알리기도 한다. 결국 7월 30일 계엄령이 해제된 바로 다음날의 사건을 본지 회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인사 일행, 공갈협박차 내교'라는 제목으로 '데모가 다시 일어나면 계엄령을 10년 선포하여 뿌리를 뽑겠다' 'xxx들 다시 데모하면 총살을 시키겠다' 등의 내용이 올라온 것이다. 신문은 여지 없이 소각처분 된다.

이렇듯 재치와 함께 어떠한 탄압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빛이 돼 공정한 비판적 사명감으로 대학의 주체를 이끌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검열로 빈 지면을 내보내야 했던 벽돌신문 제 765호

사상초유의 853.4호

80년대 초반에는 국가정보기관들이 대학본관 한 편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고 학생 대표로는 '호국단'이라는 유신정권의 산물이 존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언론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제 5공화국 초기에는 유신시절과 마찬가지로 사전검열을 받아야만 했으니 '전두환'의 '전' 자만 실려도 배포중지가 될 정도였다.

본지 765호(80년 5월 13일자) 12면에 실린 '유신독재 반대 각계 시국 선언문'은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허연 여백을 남기며 게재된다. 이런 신문을 벽돌신문이라 하는데 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 당시에는 4.19나 5.16, 삼청교육대, 군사정권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담기위해 현역 기자들의 투쟁이 필요했고 이는 853.4호라는 이상한 지령의 신문으로 나타났다. 4.19 기념호로 발간예정이었던 853호 동대신문은 당시 쓰지 못했던 시위기사와 4.19의 민주정신을 기리는 동우탑 추모행사, 4.19와 관련된 사실이 문제돼 배포 금지령을 당한 것이다.

신문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학내에 상주하고 있던 기관원에게 신문을 모두 빼앗겼고 영구 보존을 위해 500부를 학우들에게 돌릴 500부를 포함해 총 1000부를 간신히 빼돌렸다. 그리고 그 다음 호 신문을 만들면서 853호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 당국과 비록 많이 배포되진 못했지만 호수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 기자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 853.4호라는 기형의 지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 1982년 6월 1일자 회전문대에는 '...과연 학생치곤 나이가 너무 드신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소요 사태를 전투경찰이 학내에 들어와 강제해산시키는 것도 불만이 학형들 알 법보다 주먹이 만집니까?' 라는 내용이 실린다. 그리고 당연히 배포가 중단된다.

1984년 9월 본사 기자들은 백상체전 초청강연회 요지를 게재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백기완, 고은, 어의구가 초청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한다. 이로 인해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게 돼 농성을 시작으로 2주 휴간에 이른다. 대학 내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갈망했던 기자들의 싸움으로 결국 2주 후 고은시인의 강연초록만 신는데 절충적 합의를 본다. 이 사건은 민주를 외치면서도 민주를 싫어했던 이들의 손길이 학내까지 자연스럽게 뻗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나기 사건

1996년 8월 연세대에 벌어진 제7차 범민족대회가 폭력으로 일국되고 이로 인해 제 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규정을 받게 되면서 대학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강도를 더해간다. 문민정부로 정권이 바뀌긴 하였

지만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롭지만은 않았다.

'소나기'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싣는 낙서판이다. 당시 1210호(1996년 10월 7일자) 소나기는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다뤘고 그 내용에 대해 당국은 이적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편집장과 관련기자 1명을 구속했으며 이로 인해 약 한 달동안 신문발행이 되지 않았다.

소나기 사건과 관련해 기성언론들은 "맹목적으로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소나기(1210호, 1996년 10월 7일자)

사회에서 격리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논조를 내세우기도 했으며 '대학당국은 이번 일을 책임지고 대학신문의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에 편승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성 언론의 매카시적 편파보도의 경찰 상부의 추궁에 의한 건수 올리기 식 표적 수사"라며 기자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리 = 최진기 기자 gina@dongguk.edu

동대신문의 정기구독 방법이 변경됩니다.



- 2010년부터 동대신문 정기구독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올해부터 동대신문의 우편 정기구독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됩니다. 동대신문은 그동안 1만여 동문과 사회단체, 공공기관, 고교 등에 신문을 무료로 우편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점증하는 물류비용과 인터넷 신문과 웹진 발송으로 우편발송 정기구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자발적 구독료 납부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올해부터 전면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1만원입니다.

-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 발전과 교우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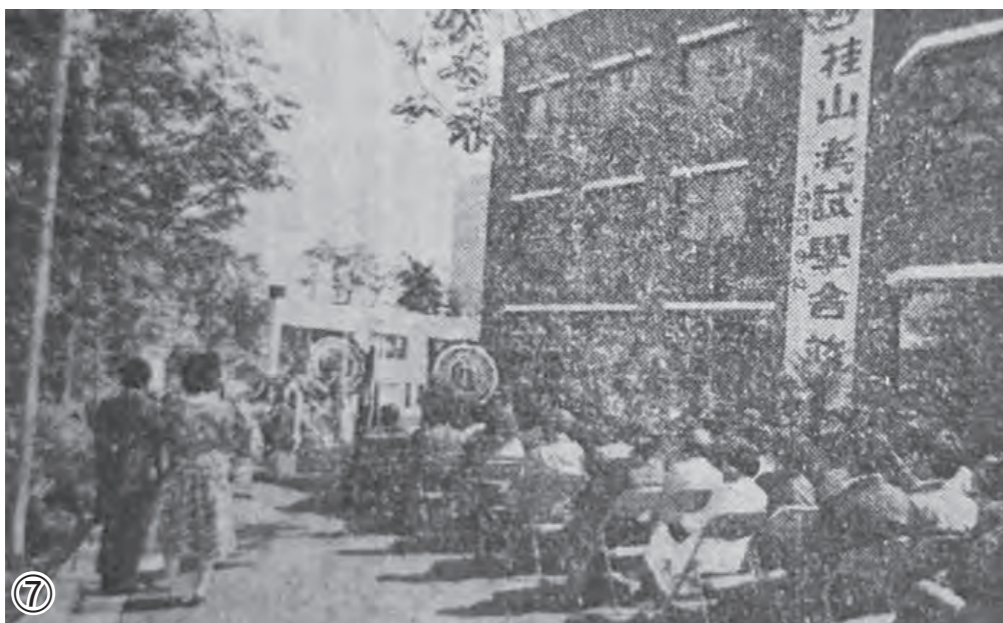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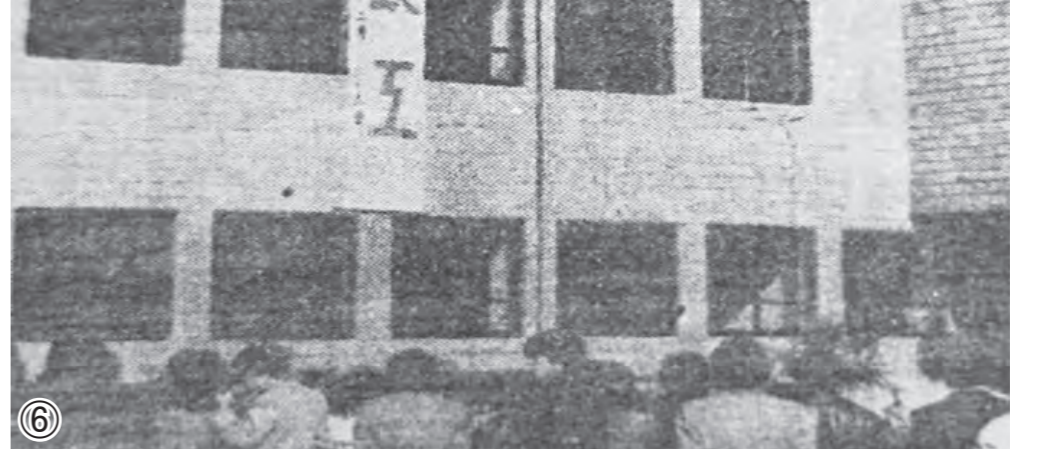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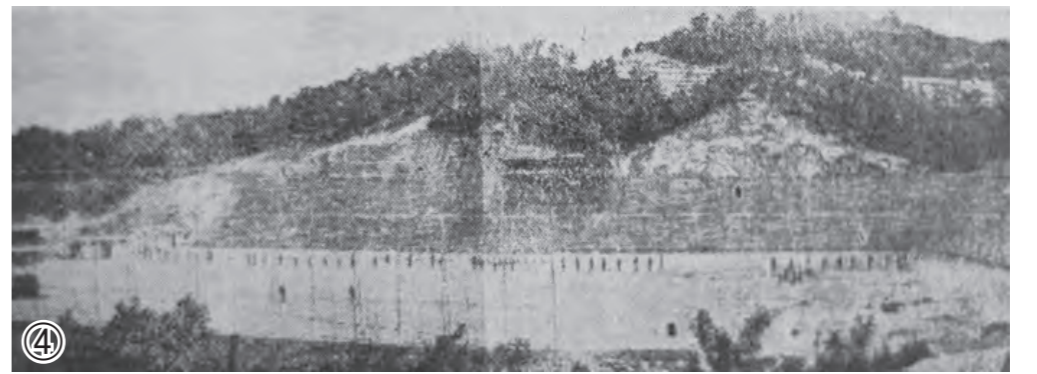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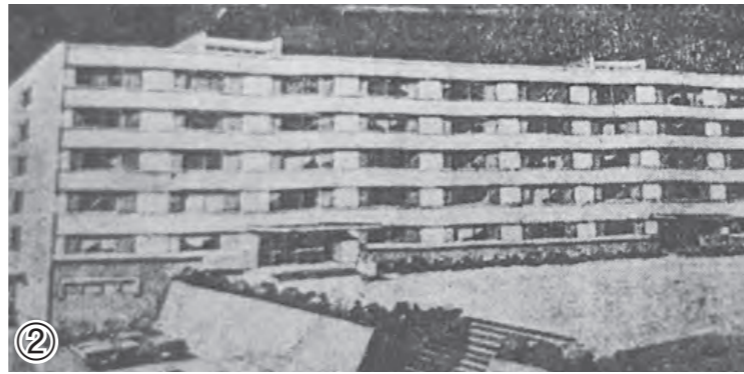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자세로 거짓없는 진실된 보도와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임을 독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기자들이 건강한 언론인으로 자라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간 정기구독료 : 1만원

※ 입금할 수 곳 : 제일은행 114-20-734228 (예금주 ; 동국대학교)

※ 입금하신 후 전화(02-2260-3495)나 이메일(dgupress@dongguk.edu)을 통해 구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학번,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정확한 우편발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사진으로 본 동대신문의 눈으로 바라본

① 82호 1면 1958년 6월 19일자=중앙도서관 및 대학건물 신축모습. ② 378호 1면 1967년 12월 4일자=지난 1967년 12월 2일에 기속사가 기공. 이 기속사는 총 공사비 2천만 원을 들여 2백여 명을 수용 할 수 있는 5층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③ 438호 1면 1969년 11월 27일자=지난 1969년 11월 25일에 사범대 기공식이 열렸다. ④ 456호 1면 1970년 6월 25일자=오늘날의 대운동장이 이 날 준공됐다. ⑤ 486호 1면 1971년 5월 24일자=지난 1971년 5월 21일에 높이 9미터의 코끼리 상이 제작됐다. ⑥ 846호 1면 1983년 3월 1일자=동국관 준공식 모습. ⑦ 903호 4면 1985년 1월 1일자(84년 10대 뉴스)=지난 1984년 10월 말에 오늘날의 계산고시학사가 완공됐다. ⑧ 975호 1면 1987년 9월 29일자=지난 1987년 9월 28일에 본관 우측에 만해시비가 건립됐다. ⑨ 1266호 1면 1999년 3월 8일자=지난 1999년 2월 22일에 상록원 개관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임시 개관했다. 상록원은 3월 말에 개관했다. ⑩ 1425호 2006년 6면 5월 8일자=지난 2006년 3월 21일에 중앙도서관 앞 박영석 동판부조가 공개됐다. 이날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서 16명의 원정대원과 박 동문이 히말라야 원정 발대식을 가졌다. ⑪ 1435호 2006년 7면 5월 8일자=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건학이념을 기리고자 정각원 아래 '동국백년비'가 설치됐다. 동국백년비는 명진학교 설립에서부터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새로운 백년에 대한 서원이 새겨져 있다.

제3회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여러 세대 또는 여러 가족에 걸쳐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된 동문가족을 찾습니다.

■ 대상 : 직계 3대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의 동문가족

* 동문가족 범위

- 신청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방계혈족

■ 시상 일시 : 2010. 5. 7.(목) 개교기념일 행사

■ 신청 기간 : 2010. 4. 5.(월) ~ 4. 18.(일)

■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main/main.jsp) 일반공지사항에서 확인

■ 기타문의 사항 : 대외협력단 진혁진(☎ 02-2260-3795)

대 외 협 력 단

중간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1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4.12~23일) 중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 물	구 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비고
중앙도서관	자료실	08:00-22:00	
	4층 열람실	24시간	제2열람실
	별관 열람실	24시간	
법학도서관(만해관)	자료실	08:00-22:00	
	열람실	24시간	

※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좌석 사석화, 한 사람이 여러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행동 금지

2. 강의실 대관서비스

가. 목적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 (1) 강의실 이용시간 : 07:00-22:00 중 강의실 상황에 따라 유동적
- (2) 대관 강의실 및 대관시간 :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다. 강의실 조회 시스템 안내 :

- (1) U-Drims 시설대관 신청에서 확인 가능
- (2) U-Drims → 대관신청 → 교내시설 → 신청하기 → 빈강의실 조회
- (3)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 앙 도 서 관

미적분학및연습 튜터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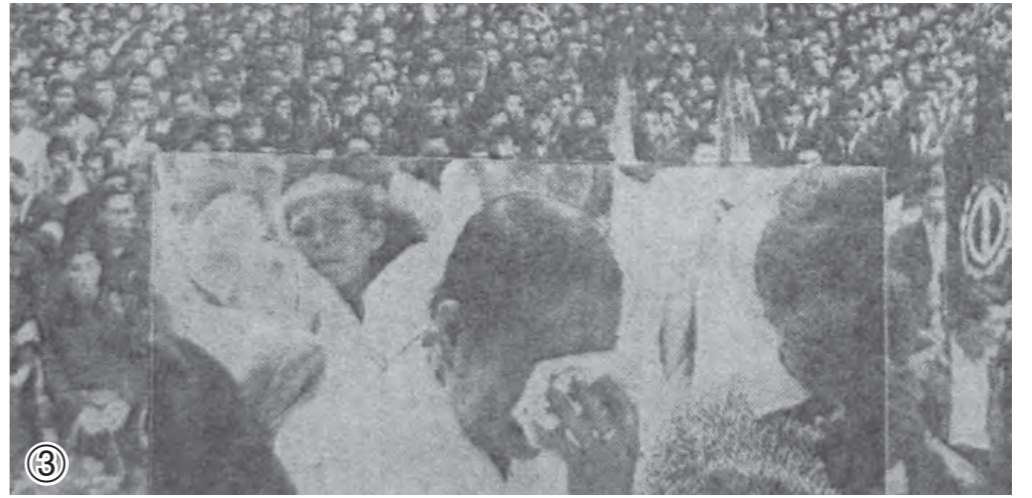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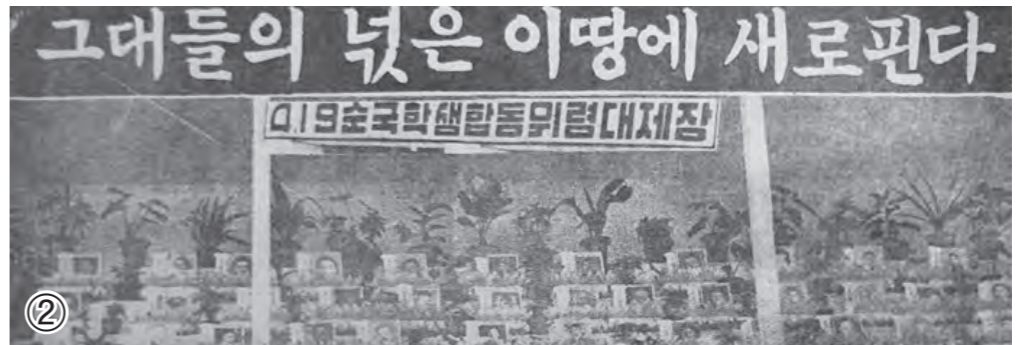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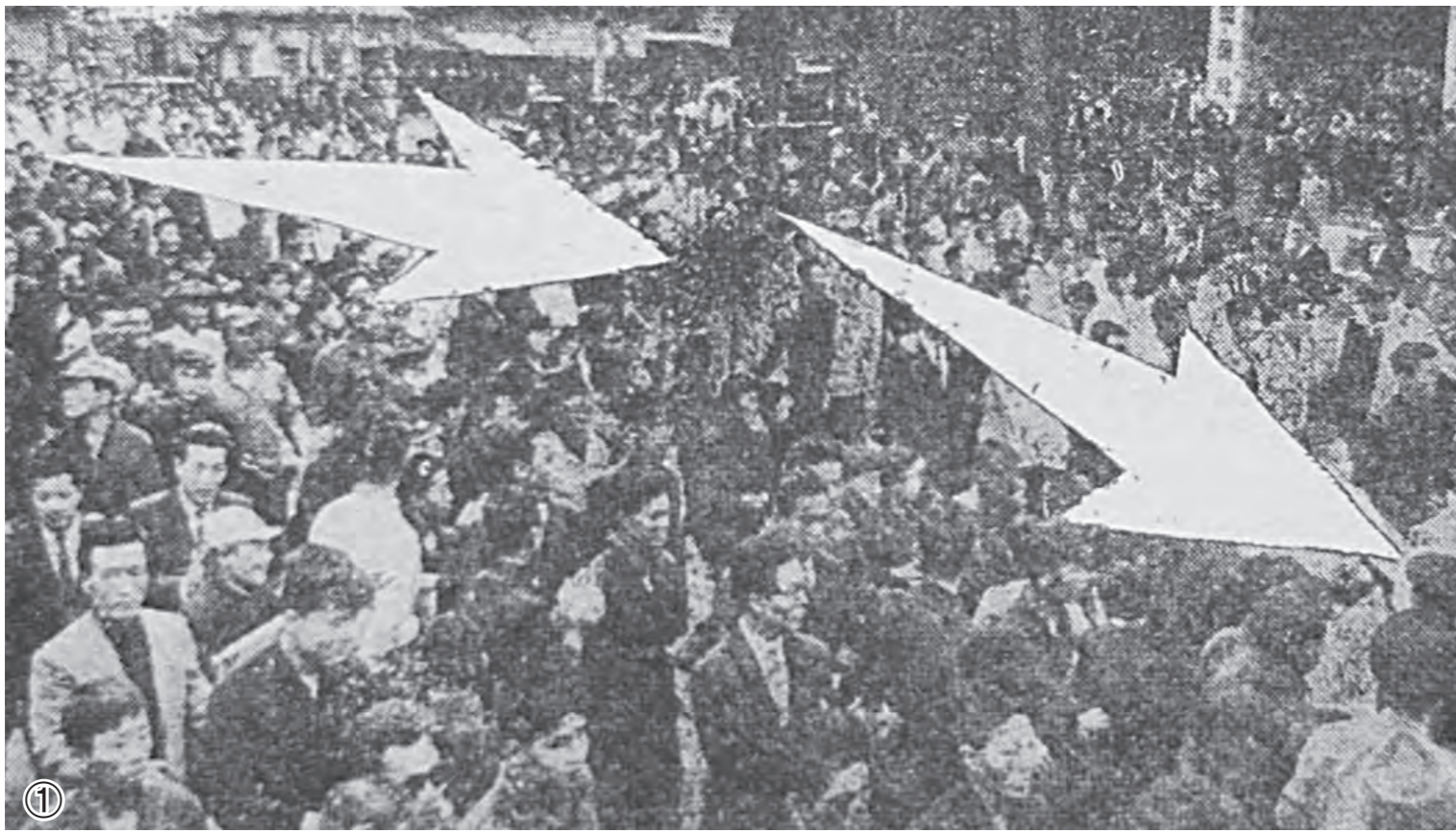
수학과에서는 미적분학및연습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기간 : 2010.03.02~06.21
2. 일시 : 월~금, 오후 2~4시
3. 장소 : 과학관 116호
4.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수 학 과



동대신문 60년사

건축물의 역사와 학생운동사

① 125호 1면 1960년 4월 30일자=4·19혁명에 우리대학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맨 앞에 서서 행렬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②, ③ 128호 1면 1960년 5월 21일자=4·19혁명 순국학생합동위령제의 모습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6월 4일 국문학회에서 추모시 를 낭독하는 등 애도를 표했다. ④ 153호 2면 1961년 4월 17일자=4·19 혁명의 1주년을 맞아 통의동에서 우리대학 학생들이 경찰관을 쫓고 있는 모습이다. ⑤ 970호 1면 1987년 8월 25일자=이한열 군의 1987년 7월 9일 장례식 때 시청 앞에 모인 애도인파의 모습이다. 우리대학 학생들도 민주화투쟁에 일익을 담당했다. ⑥ 1022호 1면 1989년 5월 17일자=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위원장 이철규 군의 의문사 규명과 관련해 '이철규동지 살인규명 및 조국의 통일을 위한 특위발대식'이 지난 1989년 5월 15일 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⑦ 1027호 1면 1989년 9월 6일자=총장구속과 관련해 학원·불교 탄압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촉구하는 '민족동국 자금심 부활을 위한 1만 동약인 결의대회'가 지난 1489년 9월 1일에 학생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빗속에서 진행됐다. ⑧ 1076호 1면 1991년 5월 22일자='노태우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1991년 5월 18일부터 학생 5백여 명이 도서관 앞을 시작으로 시청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정리=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옛 시에 취해 세상을 보니, 강물은 이름을 잃었구나!

선시禪詩 연구의 개척자 소식素石 이종찬李鍾燦 선생의 취선법醉禪法

온갖 냇물이 다 제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물을 뿜어 흐르다가 결국에는 바다로 드는데, 바다로 들고 가면 지금까지의 이름을 잃고 만다. 그저 바닷물이지 한강 물, 낙동강 물이 아니다. 결국은 큰 품안으로 안기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큰 육지의 물이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포근하게 안기어 바닷물이 되고 만다. 이를 강수실명江水失明(강물은 이름을 잃다)이라 한다.



4×6판 양장본 | 288쪽 | 값 12,000원

천방지축 개구쟁이 스님의 솔직담백한 선방 이야기!

선객에서의 범람 스님에게선 엄숙함보다는 개구쟁이 같은 천진함이 느껴진다. 속세의 찌든 때는 오래전에 모두 벗어버린 듯 마냥 순수하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느낌의 글과 사진들로 읽는 내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던 비구니 스님의 입적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몇날 며칠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스님의 솔직한 고백에서도 진솔한 성품이 전해져온다. — 일라딘 독자 서평(나이스가이)



4×6판 양장본 | 256쪽 | 값 10,000원



▲ 101호 (1959년 3월 26일자) 처음으로 등장한 네 컷 만화



▲ 1027호 (1989년 9월 6일 자) 만평



▲ 994호 (1988년 5월 10일 자) 만평

그림으로 동국 역사 기록한 촌철살인의 미학

1959년 네컷 시사카툰 등장, 날카로운 풍자로 인기
김상남 · 이혁발 동문은 기성 작가로 데뷔해 주목

동대신문에 만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제 101호(1959년 3월 26일)부터이다. 만평은 만화를 그려서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평하는 것이다. 동대신문 또한 학내외의 문제점을 지난 60년간 담아왔다. 동대신문 만화의 첫 펜을 잡은 이는 최철민 동문이었다. 최군은 첫 만화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신랄한 비평으로 독자를 사로잡았다(왼쪽 그림).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등록금이 7만 2천700원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화폐의 단위로 금액이 지금보다 작았지만, 당시로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을 것이다.

그후로 많은 학생 만화가와 만평작가들이 등장해 시대의 아픔을 풍자하고 비평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만평을 그렸던 이혁발(미술학과) 동문은 작가의 서명란에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따 바그림을 그려놓는 것으로 유명했다(오른쪽 위 -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왼쪽아래 - 5·5 쇼). 군사독재가 궁지에 몰리던 시절이라 표현은 훨씬 자유로와 졌고, 사회에 대한 비판도 신랄해진 특징이 있다. 이혁발 동문은 동대신문 만평작가 생활을 끝내고 화가로 데뷔해 독특한 실험정신을 표현한 작품으로 화단에 충격을 주곤 했다.

1970년 고기리(高基里)군이라는 만평으로 인기를 모았던 대원 씨도 어느 시사만화가 못지 않은 그림솜씨와 해학으로 유명했다. 우리대학의 상징동물인 코끼리를 모티브로해 4.19 정신을 기리는 동국인들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오른쪽 아래).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만평기자를 담당하며 만화와 만평을 모두 그렸던 김상남 동문은 깔끔한 그림솜씨와 촌철살인의 구성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던 작가였다. (가운데 아래와 오른쪽 아래) 김상남 동문은 동대신문에 기자로 입사해 일반기자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중도에 신문사를 퇴사한 후 만화동아리 만화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지난 2000년 체코 자그레브에서 열린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아홉살>이란 작품을 출품해 특별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대에서 석사 학위과정을 마치고 환경애니메이션 <갯벌아! 갯벌아> 라는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도 임치성, 이종필, 이주현 동문 등이 만평과 만화작가로 활동했으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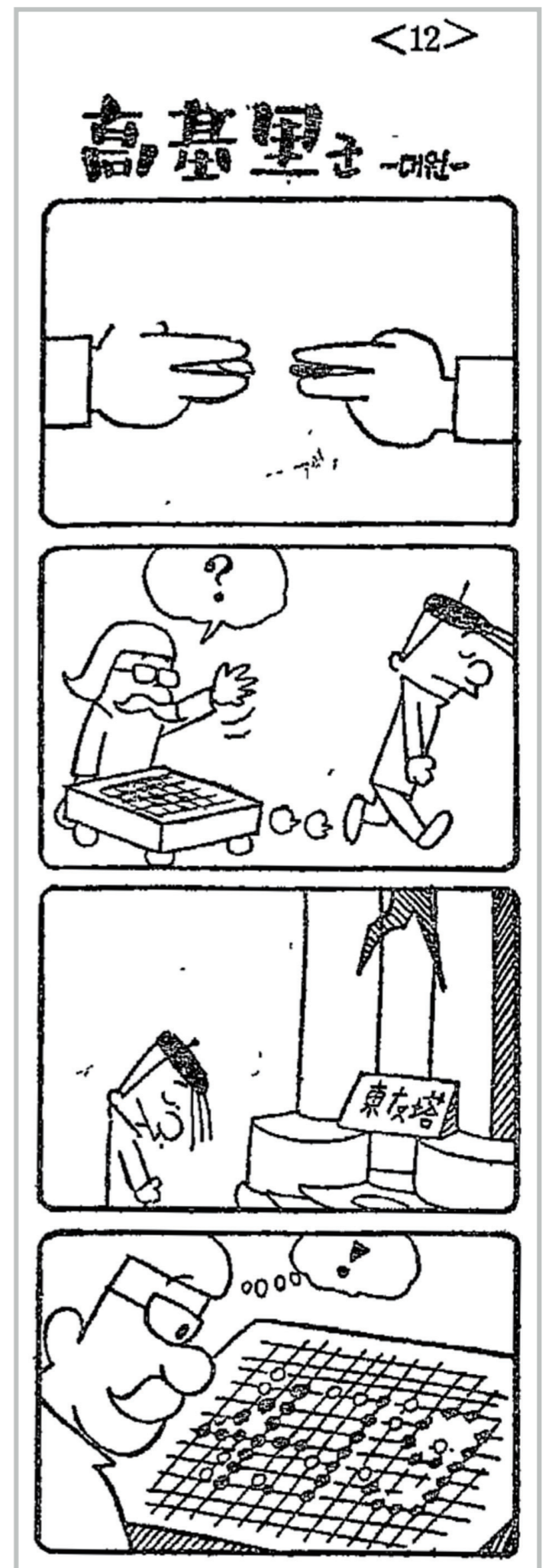
동대신문의 만평과 만화의 소재는 주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학내의 여러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글로써 표현하기 힘든 풍자와 해학을 무기로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신문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



▲ 1009호 (1988년 11월 30일자)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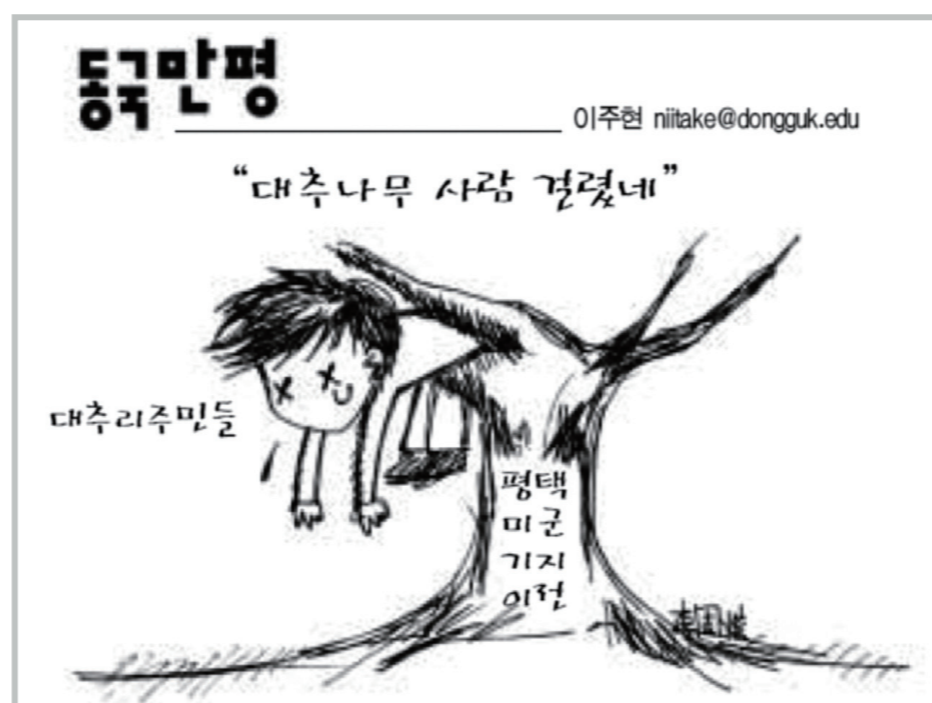
▲ 1140호 (1994년 1월 1일자) 만평



▲ 447호 (1970년 4월 16일자) 네컷 만화



▲ 1104호(1992년 9월 2일자) 만평



▲ 1426호 (2006년 5월 15일 자) 만평



▲ 1121호 (1993년 4월 14일 자) 만평

동대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 총장과의 대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는 마인드가 중요”

학교 발전 위한 동문들의 모교사랑 실천 간곡히 당부

이번 총장과 동대신문 편집장의 대담은 동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총장의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돌이켜보며,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자

참석자 :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정용재 (동대신문사 편집장)
일 시 : 2010년 4월 8일 오전 11시
장 소 : 본관 4층 총장 접견실

▲편집장 = 얼마 전 약학대학(이하 약대) 유치 성공으로 인해 학내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약대가 조성될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이하 일산 캠퍼스)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대학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 일산 캠퍼스는 우리대학의 성장 동력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산 캠퍼스에는 바이오시스템 대학과 약대, 의대, 한의대 등이 함께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의 일산병원·한방병원과 더불어 약학대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이 결집되고 나면, ‘임상 약학 중심의 교육체계’를 갖추고 ‘우수 약무 수행 임상전문가 양성’이 가능한 의생명과학 특성화 캠퍼스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국제적인 의료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양메디클러스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각종 수익사업을 개발한다면, 이를 통한 수익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재투자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S경영, 학생니즈 파악이 우선

▲편집장 = 총장님께서 취임 직후 CS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많은 학내 서비스를 개선했고, 학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 CS경영의 근본정신은 ‘고객만족’입니다. 단순히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작은 의미의 CS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CS경영을 이루려면 교수나 교직원들이 고객(학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CS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편집장 =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대학에서 CS경영을 도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장 = 물론 CS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학생=고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객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고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학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로서 대하자는 것입니다. 즉, 학생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대학발전 재원 마련에 총력

▲편집장 = 중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 = 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년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고 약 200~300억 원의 재원이 있어야 지금보다 대학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본부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부금이 약 200억 원에 이르렀고, 국고지원사업으로 644억원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푸른곰팡이, 동국아트컴퍼니, 기술지주회사 등의 학교 기업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수영장 부지를 개발하는 것도 수익창출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와 고양메디클러스터에서 BT분야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 시장주의화 주장 맞지 않아

▲편집장 = 최근 고려대 김예슬 양의 자퇴선언과 중앙대의 ‘학문단위 구조조정’ 발표 등을 계기로 대학의 지나친 시장주의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장 = 저는 대학의 시장주의화란 말은 알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은 미래 사회의 수요를 최대한 예측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수요에 맞춰 교육 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요가 아니라 향후 5~10년 뒤를 잘 예측해 학과를 조성하고 교육을 해야만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잘 특성화되어 있는 국문학, 연극영화학, 경찰행정학 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학문영역들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책 웰치 ‘위대한 승리’에 감명

▲편집장 = 대학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여유가 날 때 하시는 취미활동과 감명 깊게 읽으신 책,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 저는 모든 일을 즐겁게 재미있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취미로 여러 가지 운동을 즐겼지만, 요즘은 등산이나 속보를 즐기는 편입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책 웰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정승님이 펴내셨던 ‘무소유’를 비롯한 많은 도서들 또한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한 책으로 좋습니다.

▲편집장 = 끝으로 동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오.

△총장 =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지 동문들이 진심으로 동국대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모교 사랑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의 모교 사랑이야말로 대학 발전의 큰 힘이 됩니다. 또, 학생들은 앞으로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한 구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은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실속 있게, 멋있게 사는 동국인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장 =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골로 만든...

동목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목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목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성장기 어린이
- 수험생
- 직장인
- 노약자
- 어약자

Choco DONGOKGO

초코 동목고

자매품

자매품 초코동목고는, 동목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목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목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목고"와 "초코동목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4.19 학생혁명 50주년 특집 '그날의 증인'

동국인이 일궈낸 '4월 민주주의'

노희두 선배 등 수 십명 총상 ... 동우탑 건립해 유지 계승 소중한 4월 학생혁명 정신 되살릴 학교 차원 사업 절실

심재익

농학과 64졸 · 동국대 4·19 혁명사 편집인

1955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신익희 선생이 자유당 독재와 싸우다가 원인모를 사인으로 서거하시어 온 국민이 울분으로 개탄하던 적이 있었다. 또 1960년에는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데모가 마산에서 일어나, 고(故) 김주열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수장된 시체가 떠오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19혁명은 우리대학이 주도

이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4월 18일, 우리대학 지하식당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대책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고대생들이 구속학생 석방과 학원의 자유를 달라며 현 시정 근처에 위치했던 국회 앞까지 데모를 하다가 유진호 박사과 이철승 국회의원 등 선배들의 만류로 귀교하던 길에 천일백화점(현 청계천4가) 앞에서 정치강패들에게 테러를 당했다'는 방송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우리대학의 59학번을 중심으로 30여명이 동참하여 4월 19일, 3.15부

정선거 규탄대회에 앞장서기로 다짐하였다.

4천여 동대생 경무대 앞서 시위

1960년 4월 19일 오전9시 우리 대학 농학과 2학년 40~50여명은 농장실습을 포기하고 농학과 대의원 김창배, 심재익 등이 주도하여 동국대학교의 이름이 적힌 붉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4.19민주혁명 대열에 스크림을 짜고 앞장서게 되었다.

동국의 4천여 건아들은 선발대로 2천여 명이 교정에 운집하여 본 대학 교문을 바리케이드로 중부경찰서 무장경관들과 대치했으나, 찜통과 육탄으로 돌파했다. 노도와 같이 교문을 박차고 을지로입구 내부부(현 외환은행) 앞에서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정 앞을 돌았다.

동국대 학생들은 경무대, 즉 지금의 청와대로 돌진하여 중앙청을 돌아 해무청(현 통일동 종합청사) 앞에 도착해보니 수백 명의 무장경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붉은 물감을 탄 불자동차를 대기해 놓고 최루탄과 붉은 물대포를 우리 동국의 4.19혁명 대열에 쏘아댔다.

하지만 용맹스러운 우리 동국의 4.19혁명

대열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대형 수도관을 굴리고 최루탄을 주워 다시 던지면서 효과 동 종점 운전기사가 두고 간 전차를 밀어 전진하며 경무대 앞 바리케이드를 제쳤다.

그러자 경무대 앞의 무장한 군경들이 무자비하게 총탄을 쏘아 최초로 우리대학 법과 3학년 고 노희두 동지가 장렬하게 쓰러지고 수십 명의 피를 흘린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3.1당 뒤로 부상자들을 부축하여 목숨을 내걸고 방탄조끼가 된 우리대학의 4.19학생 민주혁명 주역에 본인도 한 사람이다. 세계 역사에 길이 빛날, 목숨을 걸었던 4.19민주학생혁명에 본인을 포함한 동국대학교 4.19혁명 동지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4.19민주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희두 군 등 수십명 총탄세례

피를 본 동국의 4.19혁명 동지들은 경무대 앞에서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부상당한 농학과 59학번 박흥규, 이종학 등을 들쳐 업고 3.1당 뒤로 피신하면서 "이승만 독재정권 하야하라"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라고 외쳤다. 표주동 뒷골목에서 이제 3.15부정선거의 원흉인 이기붕 국회



▲'동국대학교'가 적힌 붉은 현수막을 들고 집결한 우리대학 4.19혁명 시위대

의장 집을 쳐부수러 가자고 외치며 광화문에서 서소문으로 해서 서대문 로터리를 돌아 적십자병원 옆의 이기붕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선발대에 의하여 이기붕의 집은 점거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동국의 4.19혁명대열은 "이기붕 일가는 자폭하고 3.15부정선거 다시 하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광화문 종로 1, 2, 3, 4, 5가를 질서 정연하게 민주 시민들의 곁기를 위한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때 서울 장안의 학생과 시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이미 계엄령이 선포 되었으며 4.19민주학생혁명은 군, 관, 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시위를 하며 서울 운동장에 도착하니 석양 무렵이 되었고, 동국의 4.19혁명대열은 일단 해산하였다.

동우탑 세우고 소중한 뜻 기려

4월 25일, 대학교수들의 4.19학생 혁명지 지 성명과 동국대 김영달 교수의 발의로 이날 3백여 명의 대학교수들의 시위에 학생과 시민들도 합류하였다. 그리고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기붕 일가는 아들 이강석에 의해 자살하였으며, 전 내부부장관 최인규는 사형 당하고 말았다. 27일에는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과도 정부의 허정 내각수반과 송요찬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우리대학이 시경과 종로경찰서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동국대학교 선도부가 중심이 되어 거리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치안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리고 29일, 모든 대학들이 개강하면서 동국의 4.19혁명 동지들도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였다. 그 후 4.19혁명 정신을 후배들에게 계승

시키기 위하여 우리대학에 '동우탑'을 세워 매년 4.19민주학생혁명 기념일에는 고(故) 노희두 동지의 추도식을 거행하고, 4.19혁명 기념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1999년 10월 19일에 동국대학교 4.19혁명 동지회를 창립하여 동국의 4.19혁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2003년 12월 19일, 역사적인 '동국대학교 4.19혁명사'를 편집인으로서 출판하였다.

송고한 혁명정신계승사업 절실

고(故) 노희두 동지의 동상을 동우탑 앞에 세우고, 이제 4.19혁명 50주년 기념일에 정부에서 4.19혁명 공로훈장 건국포장을 전국에 289명 가운데 동국대학교에 35명이 수여 받게 된다. 본인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가보훈처장과 본 대학 4.19혁명동지 회장단의 대담에서 '동국대학교 4.19혁명사' 12쪽에 실린 화보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4.19혁명의 주역은 동국대 학생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4.19혁명사를 재조명하여 후배들에게 4.19혁명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의 영상 미디어가 만들어져야 하고 4.19혁명 기념 등산대회를 북한산에서 백두산과 한라산 그리고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국 초, 중, 고, 대학생들의 4.19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웅변대회를 본 대학 총장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봉황기를 걸고 개최해야 하고 넷째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해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를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최루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무대앞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고 있는 우리대학 학생들

"덴노헤이카 반자미!"

"천황폐하 만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절을 하며 외친 말입니다. 내년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런 기억으로 각인된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입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 2009년 9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교도통신' 인터뷰 중에서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중장 출신 미우라 공사가 주도하여 조선의 명성황후를 참혹하게 모살(謀殺)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09년, 이국 땅 하얼빈에서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인 죄'를 들어 조선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9년 현재,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슬펐던 장례식을 치른 기록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가 일본 왕실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덴노헤이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명성황후 모살을 사죄하고 참회하십시오!

궁내청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십시오!

우리는 일왕 아키히토의 한국 방문을 '아주 특별하게' 환영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조계종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문화재제자리찾기

바탕그림: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수록된 발인반차도(發輓班次圖)

※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일제가 약탈 반출한 우리문화재 반환운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조선을 죽이다

명성황후 살해 기록과 역사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모를 죽인 자'들의 고향과 무덤을 누비면서 그들이 남긴 유품과 기록을 찾아 이국의 곳곳을 만행(萬行)한 눈 푸른 남자(南子)의 비장한 수행 기록

□명성황후 살해에 직접 가담한 당시 한성신보 편집장 고비야키와가 쓴 수기(민후조락사건) 원역 수록

□일본에서 '조선왕비 능목설'을 불러일으켰던 <에이조 문서> 등 일본 국회 헌정자료실에서 입수한 <조선왕비사건 관계자료> 전문 수록

해문 역음/신국판 304쪽/값 12,000원/동국대학교출판부



역사는 아직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관리 실태

방치된 홈페이지, '소통의 장' 요원

단위 홈페이지 방치 상태, 외국인 학생은 '불편' 아우성

메인, 학과, 외국어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대학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대학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홈페이지 관리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홈페이지는 우리대학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대학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학과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일부 잘못된 정보가 계속 그대로 업데이트 돼 있는 상태이다. 또한 중문, 일본 홈페이지의 경우 처음 개설된 이후 새로운 정보 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학과 홈페이지 또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實情)이다.

잘못된 정보 그대로 공시

우리대학 메인 홈페이지 배너 중 산학협력단 연구업적조회란에 이미 학교를 그만둔 교수의 잘못된 정보가 3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담당자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뒤늦은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교직원 번호' 검색란에 '2264-38509'라는 잘못된 전화번호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등 잘못된 정보가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돼 있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방치

우리대학은 현재 영문, 중문, 일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외국

어 홈페이지에서는 단순한 학교 소개 외의 정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대학 영문 홈페이지의 경우 학사, 입학 등의 공지사항 'Notice'란과 학교관련 뉴스가 게재돼야 할 'News Clipping'이 존재하지만 일본 홈페이지와 중문 홈페이지에는 그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Notice'란과 'News Clipping'란이 존재하는 영문 홈페이지마저도 공지사항란에는 현재 아무런 게시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외국어 홈페이지 중 특히 중문 홈페이지와 일본 홈페이지는 이대와 외대같이 대학원에 관련 학문 통번역학자가 설치돼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학생들이 학교 공지사항과 같은 글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문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주모(일문3)양은 이에 대해 "최소한 수강 신청 매뉴얼과 같은 학사정보를 중국어로 설명해줬으면 한다"며 "중문 홈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吐露)했다.

또한 도원야(국문2)양도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학사정보를 얻는다"며 "우리대학의 중문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타대학은 홈페이지 관리 꾸준

실제로 건국대와 중앙대는 외국어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중앙대 국제교류팀관계자는 "현재 학교

학생과 본교에 수학(修學)을 원하는 학생과 교류대학담당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 중요 공지사항 내용을 번역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경우도 본교에 수학하고 있는 학생과 더불어 수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에 비해 중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등 운영 활동이 활발하다. 이에 대해 건국대 정보전략실 관계자는 "중국 유학생을 중국어 번역 인원으로 따로 뒤 국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과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해 업데이트 중"이라며 "우리대학에 중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중문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다른 대학에서는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입장과 수학을 원하는 학생, 타 대학 교류관계자들을 배려해서 외국어 홈페이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설이후 업데이트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우리대학 외국어 홈페이지와 비교되는 점이다.

관리 부실한 학과 홈페이지

우리대학 학과 대부분이 학과의 특성과 교수진, 수업과정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학과 홈페이지는 학교 전체 홈페이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학과 소개와 교과과정, 개설 과목, 전공 교수들의 프로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학과 홈페이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문자 수는 적지만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하는 외부인이나 입시준비생이 많이 접속한다. 하지만 학과 홈페이지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과 홈페이지의 경우 과별로 운영의 차이가 크다. 홈페이지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학과가 있는 반면 홈페이지만 개설돼 있을 뿐 아무런 게시물이 게재(掲載)돼 있지 않은 홈페이지도 있다.

전략홍보실 관계자는 "각 과의 요청에 의해 전략홍보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 가능하지만 콘텐츠 게시나 관리는 각 학과의 자율적인 방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학과별 홈페이지 운영에 차이가



▲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뤄지는 영화영상학과 홈페이지(위), 개설만 돼 있을 뿐 아무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은 B학과 홈페이지(아래)

나는 이유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제재(制裁)도 없이 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행정학과 및 영화 영상학과의 경우 게시물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영화영상학과는 경우 학과 소개, 공지사항 등 기본적인 콘텐츠에 충실했다. 또한 '입시 Q&A', '영화영상소식', '영화를 본 후' 등 학과와 관련된 다채로운 콘텐츠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홈페이지가 방치된 학과도 있다. 총 53개 학과 중 홈페이지 개설 후 업데이트된 자료가 전무한 학과는 10개 학과로 약 20%를 차지한다.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A학과의 한 조교는 "홈페이지를 만들긴 했지만 방치상태이고 운영에 손대지 않아 운영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또한 B학과 조교는 "찾은 관리인의 변경으로 인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터라 홈페이지 관리가 불규칙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학과 홈페이지 관리의 필요성

학과 홈페이지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는 재학생 대부분이 과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싸이월드 클럽이나 다음 카페, 네이버 클럽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대학에 들어오길 희망하는 입시준비생이나 우리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외부인이 싸이월드 클럽 같은 외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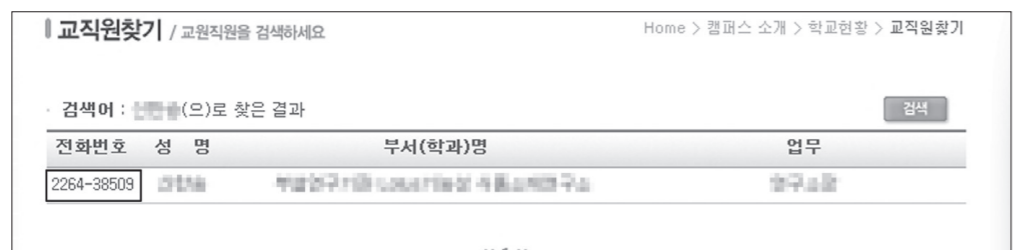
실제로 입시과정을 겪은 세내기들은 학과 홈페이지 부실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 했다.

노소담(불교미술)양은 "불교미술학과는 내게 생소한 학과였다. 그래서 어떤 과인지 알고 싶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소개가 너무 간단했다"며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막막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윤호 입학처장은 "홍보책자에 모든 과에 대한 정보를 실을 수는 없다"며 "요즘 시대는 인터넷 시대인 만큼 홍보책자보다 각 과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입시준비생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 홈페이지는 자신의 과를 알릴 수 있는 매체인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과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 잘못된 전화번호가 게시된 '교직원 번호' 검색란

Accelerating Innovation Cycle!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 설립 기념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대학 발전의 가속화!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설립을 기념하여 기술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디어·기술의 사업화 실현에 관심있는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우수 아이디어, 발명기술,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및 평가를 통한 사업화 실현
- 대회개요
 - 참여자격 : 우리대학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원 등)
 - 참여형태 : 개인 및 팀 단위 참가 가능
 - 대회기간 : 2010. 4. 5 - 4. 30
 - 주최 :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 후원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제
 - 보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
 - 외부기관(기업,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방안
 - 우리대학의 이미지, 역량, 브랜드를 통한 사업화 방안
- 참여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일반공지)의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holdings@dongguk.edu로 발송
※ 양식은 각 사업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가 수정할 수 있음

사고의 향연

思考몽치, 제5회 동국 글쓰기 아카데미 2010년 1학기 글쓰기 아카데미

〈5월 강좌〉

- 자기소개서 특강 / 월 18:00~20:00 / 강의실 M114 / 김윤경 동국대 강사
- 인문학적 글쓰기, 과학적 글쓰기 / 화 18:00~20:00 / 강의실 K212 / 복도훈 문학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강의기간 : 2010년 05월 03일(월) ~ 05월 25일(화) / 강좌 당 주1회 2시간(총 8시간, 4주 과정)

- 기 타 -

- ▶ 신청방법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
- ▶ 등록기간 2010년 4월 12일(월) ~ 각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 ▶ 신청대상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 ▶ 기타 각 강좌 당 20명 선착순 마감 / 수강 신청 시 수강료 10,000원 납부(3/4 출석 시 환불)

* 수강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학과,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강좌명, 담당강사명]

동국대학교 글쓰기센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동국대학교 기술지주(주) 대표이사

응축된 가족의 그리움 묘사한 영화 '7월 32일'

우리대학 영상센터 지원으로 제작...진승현 감독 데뷔작



▲7월 32일 영화 포스터



▲아빠 만수를 기다리는 여주인공 꽃님이가 길가에 서있는 영화 속 장면

최근 빚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흉흉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이전보다 퇴색(退色)된 듯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딸을 버린 아버지와 자신을 짐장촌에 팔아버린 아버지를 복수하려는 딸 사이의 원망(怨望), 증오를 그려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영화가 개봉된다.

이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고은 작가의 소설 '만월'을 영화화한 '7월 32일'이다. 이 영화는 우리대학 영상센터에서 공동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영화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진승현 감독의 작품이다. 가족 휴먼드라마인 '7

월 32일'은 오는 15일 롯데시네마 명동 에비뉴엘관에서 시사회를 갖고 오는 22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開封)할 예정이다.

영화 '7월 32일'에서 주목할 점은 고은의 소설 '만월'을 영화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진승현 감독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를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고은 선생님의 작품 중 소설 '만월'은 70, 80년대의 한국적 정서가 깊이 담겨있고 가족 간의 애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 감독은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대학과의 인연이 한 몫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실 원작 소설 '7월 32일'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을 묘사(描寫)하기 위해선 많은 인력이 필요

했다고 한다. 또한 멋진 영상을 위해 촬영의 90%가 부산에서 로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기로 계획되어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영화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支援)은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영상미디어센터와의 공동제작을 계기로 촬영지원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촬영기자재를 빌릴 수 있었다"며 "덕분에 원작에 걸맞는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영화 '7월 32일'은 제 18회 후쿠오카 국제영화제에 초청(招請)받았고 제 3회 충무로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등 예술영화로서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화 '7월 32일'은 저

예산으로 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화제에서 영상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의 숨겨진 멋진 풍광(風光)을 고화질로 담아낸 영상은, 관객의 시선을 화면안으로 끌어당길 정도로 매력적이다. 더불어 주인공인 두 인물 딸 꽃님과 아버지의 어긋난 인연으로 인해 펼쳐지는 기구하면서도, 모진 이야기는 대규모 극장에서 개봉되는 여느 영화와 달리 우리에게 잊고만 지냈던 '가족 간의 정(情)'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 가족애와 더불어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99분이란 시간 속에 응축(凝縮)된 영화 '7월 32일'에 다 함께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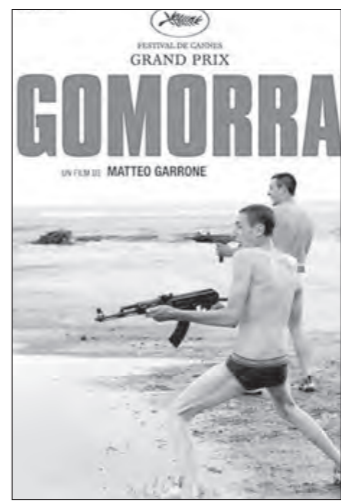
송영원의 지면상영

(2)고모라

불편한 진실, 담담하게 풀어내



때때로 우리는 사진처럼 기억한다. 모든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다. 결정적인 한 순간이 다른 모든 기억을 압도한다는 의미다. 각자가 지나왔을 고유한 추억들은 사진을 통해 모아지고 비로소 다른 기억을 환기시킨다. 내 입맛대로 윤색된 추억은 결정적 순간으로 강렬하게 각인되어 우리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남겨준다. 영화제에 관한 추억 역시 때로는 이런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을 때가 있다. 2008년 부산영화제의 야외상영작으로 상영되며 작은 사고를 났던 <고모라>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고모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다. 거기에는 기계고장으로 상영시간이 늦어진 까닭에 상영 후 집으로 돌아가기가 난감했던



▲고모라 (Gomorra, 2008)
장르 : 드라마, 범죄
감독 : 마테오 가로네

경험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영화제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런 이색적인 경험까지 포함한 기억의 사진찍기다.

그러나 <고모라>가 불편했던 까닭은 단지 그런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이 영화는 실로 불편절하고 적나라하며 감출 줄을 모른다. 로베르토 사비아니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고모라>는 마피아 카포라 가문에 의해 지배되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실상을 고발한다. 그곳은 권력과 지지부진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카포라 가문의 공포지배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배신한 이웃에게 방아쇠를 당기며 관습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얼핏 이야기만 보자면 흔한 범죄영화나 느와르영화의 분위기를 상상하기 쉽지만 이 영화의 분위기는 의외로 매우 건조하다. 구역질나는 범죄현장을 너무도 담담하게 그리는 탓에 폭력의 일상성은 더욱 극대화되고 종종 스크린의 벽을 넘어 현실처럼 다가온다. 관객의 불편함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 영화가 특별한 까닭은 비록 극영화의 형식을 빌렸을지언정 폭력을 쾌락화 시키지 않고, 실제로 나폴리에서 일어나고 있을 현실들을 사진처럼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정교하게 교차되며 펼쳐지는 <고모라>는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사건들을 생생하게 이어 붙이는 것만으로 범죄도시 나폴리라는 거대한 한 장의 사진을 완성시킨다. 이 압도적인 폭력과 절망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존재하는 현실만을 처참하게 보여주는 탓에 지나치게 절망적이라는 비난마저 받고 있는 <고모라>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영화가 현실에서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고모라>가 주는 불편절함과 불편함은 기계이 단어들 일만한 가치가 있다. 나폴리의 카포라와는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가 시사 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 불편함으로부터 눈 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결정적 순간 속에 있다.

영화평론가 ·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석사 수료

아름다운 조각들의 향연 '동국 조각전'

장학기금 조성 위해 기획... 동국갤러리서 내일(13일)까지



'내 살점을 떼어내 조각후배에게, 내 살이 너의 피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된다.'

우리 대학 미술학부 조소(彫塑) 전공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국 조각회'가 후배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기획전 '동국 조각회전'을 내일(13일)까지 동국갤러리(문화

관 지하 1층)에서 진행한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동국 조각회전의 수입금의 전액은 조소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獎學)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지우개, 컴퓨터 모니터, 표지판, 커피 원두 등 다양한 재료와 동국 조각회 작가들의 상상력이 결합된 제작된 57개의 작품들은 관객들

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손인환 동국 조각회 회장을 비롯해 비엔날레, 개인전 등을 통해 조각가로서 두각(頭角)을 보이고 있는 동국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교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상원 수습기자 sang1@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10년 3월 22일 ~ 2010년 3월 31일

단위기금

고동민(기업/재단, 5만원) 김결(동문, 1만원) 김정연(기업/재단, 10만원) 문희영(동문, 1만원) 박승용(동문, 1만원) 손지숙(동문, 1만원) 윤해숙(동문, 1만원) 이승철(동문, 1만원) 이원석(동문, 1만원) 정경란(일반/기타, 1만원) 정경화(기업/재단, 20만원) 정용수(동문, 1만원) 최상은(기업/재단, 10만원) 최재용(기업/재단, 5만원) 최태영(기업/재단, 5만원) 추교춘(기업/재단, 500만원) 코모도호텔경주(기업/재단, 100만원) 한재승(동문, 1만원)

병원발전기금

강소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강연주(경주병원/직원, 3천원) 강지영(경주병원/직원, 5천원) 광희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권오철(경주병원/직원, 3천원) 권희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경진(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경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보라(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선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제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시은(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영진(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옥진(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용숙(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은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은정(의료원직원, 3천원) 김재섭(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지예(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창렬(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치선(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현정(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형수(경주병원/직원, 6천원) 김혜숙(경주병원/직원, 5천원) 테일러픽처스(기업/재단, 50만원) 모종은(경주병원/직원, 5천원) 박미애(경주병원/직원, 3천원) 박선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박성원(경주병원/직원, 3천원) 박성준(경주병원/직원, 3천원) 박정숙(불교신도, 10만원) 박해숙(경주

병원/직원, 3천원) 박현미(경주병원/직원, 1만원) 박혜진(경주병원/직원, 3천원) 박희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배서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서남순(경주병원/직원, 1만원) 서미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설향미(경주병원/직원, 1만원) 손정화(경주병원/직원, 5천원) 손주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신진의(경주병원/직원, 3천원) 안영길(경주병원/직원, 3천원) 양보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양재연(경주병원/직원, 3천원) 양정우(경주병원/직원, 3천원) 윤수연(경주병원/직원, 3천원) 윤수임(경주병원/직원, 3천원) 윤용대(불교신도, 3만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준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소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수연(경주병원/직원, 5천원) 이수현(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

애영(경주병원/직원, 5천원) 이영수(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윤석(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원호(경주병원/직원, 5천원) 이정연(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정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종득(경주병원/직원, 5천원) 이준길(경주병원/직원, 5천원) 이지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태영(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형경(경주병원/직원, 3만원) 이혜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일현스님(스님, 10만원) 임선화(불교신도, 5천원) 장미란(경주병원/직원, 1만원) 정경운(경주병원/직원, 3천원) 정승은(경주병원/직원, 5천원) 정재용(경주병원/직원, 3천원) 정희라(경주병원/직원, 3천원) 조승호(경주병원/직원, 3천원) 주은명(경주병원/직원, 3천원) 진선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최문희(경주병원/직원, 1만원) 최민화(경주병원/직원, 3천원) 최예은(경주병원/직원, 3천원) 최희정(경주병원/직원, 3천원) 하민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하현지(경주병원/직원, 3천원) 한영희(경주병원/직원, 5천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황진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비지정발전기금

강병원(불교신도, 1만원) 강선식(일반/

기타, 1만원) 강태진(동문, 1만원) 강형철(대학원/불교, 1만원) 고흥 수도암(사찰, 1만원) 공만식(동문, 2만원) 구경도(일반/기타, 1만원) 김동구(대학원/불교, 1만원) 김동욱(동문, 1만원) 김미경(불교신도, 1만원) 김미숙(서울/교수, 2만원) 김수현(동문, 2만원) 김유정(학부생, 1만원) 김재민(대학원/불교, 1만원) 김후관(동문, 1만원) 남순연(불교신도, 1만원) 박금표(서울/교수, 1만원) 박래순(불교신도, 1만원) 박미진(동문, 1만원) 박선영(불교신도, 1만원) 박인례(불교신도, 1만원) 박재희(불교신도, 1만원) 백성열(일반/기타, 1만원) 신상운(일반/기타, 1만원) 양석호(동문, 3만원) 양정모(동문, 1만원) 여영주(불교신도, 1만원) 여현스님(스님, 1만원) 우철희(동문, 3만원) 위희정(서울/직원, 1만원) 윤용일(동문, 1만원) 윤종목(동문, 1만원) 이문영(동문, 1만원) 이상훈(동문, 1만원) 이진욱(동문, 2만원) 이현호(동문, 1만원) 정재형(서울/교수, 10만원) 조경덕(일반/기타, 1만원) 조화숙(일반/기타, 1만원) 황정일(서울/교수, 2만원)

장학기금

(재)성남장학회(기업/재단, 694만8천원) (주)유비티아(기업/재단, 2,000만

▶ 15면에서 계속

“사람 위한 법, 법 지배 받는 사람 그 기로에서 고민한다”

재판 앞두고 ‘인연(因緣) 사상’ 생각하는 독실한 불자



자랑스런 동국인을 찾아 < 4 > 헌법재판관 김희옥 동문



사진설명 ▲김희옥 동문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6년 9월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받고 있다 (맨 위) ▲ 헌법재판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김희옥 동문 (가운데) ▲ 2007년 ‘자랑스런 동국인’ 상을 수상한 뒤 전순표 전 총동창회장과 기념촬영 (아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 10조항이다. 이처럼 국민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동문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김희옥(법72졸) 동문이다.

법은 사람을 지키는 틀이어야

김희옥 동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2006년 헌법재판관에 부임했다. 김 동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면서도 “헌법재판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사명감(使命感)을 밝혔다. 또한 그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법을 움직이는 주체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법조인으로서의 어려움도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사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부처의 생명 존중 사상과도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운문사서 싹튼 불교 인연 각별

김희옥 동문은 매일 하루를 절에서 시작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김 동문은 “놀 곳이 마땅치 않던 시절 운문사를 뛰어다녔다”며 “그 덕에 불교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 동문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인연(因緣)사상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 그가 우리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도 우리대학이 불교종립대학이라는 이유가 컸다. 김희옥 동문은 1968년 법학과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는 “수석을 했다는 것과 더불어 불교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다”고 말하며 당시를 회상

했다. 또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상범 교수 가르침 간직해

지방에서 온 김희옥 동문에게 근로장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배배간의 정은 큰 힘이 됐다. 근로장학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학교가 마련해 준 기숙사다. 김 동문은 “근로장학사에서 있었던 추억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근로장학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암울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토론의 장을 열기도 했고 함께 북한산에 오르며 미래를 다짐하기도 했다. 더불어 교수들과의 인연도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김 동문은 재학시절 법학과 한상범 교수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내가 교수님 조교를 자청했다”며 “교수님 연구실에서 법에 대해 많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판결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여유를 가지고 서둘러라’

김희옥 동문은 학부 졸업 후 4년 만에 사법고시 18회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Eile mit Weile’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여유를 가지고 서둘러라’라는 뜻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공부하기 위해 아침에 남보다 서둘러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

이런 그의 태도는 30여년 공직자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성실(誠實)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공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委任)받은 것이다”라며 “성실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희옥 동문은 76년 검사로 부임해 법무부 차관을 거쳐 헌법재판관까지 30여년 간 공직자로 생활하며 동국을 빛내왔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총동창회가 선



정한 ‘2007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받기도 했다.

모교에 대한 애정도 각별해

늘 학교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는 그에게 그는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학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하는 김희옥 동문. 특히 그는 로스쿨에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로스쿨 탈락에도 열심히 공부해 매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후배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 후배들에게 “모든 것은 학교의 순위보다 자신의 노

력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맞는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뒷마당에는 ‘헌법수호자상’이 서있다. 이 헌법수호자 상은 오른손에 저울이 새겨진 책을 가슴에 품고 왼손은 쇠사슬을 감아 강하게 움켜쥐고 있다. 공평과 정의의 상징인 저울을 가슴에 새기고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을 헌법을 통해 없애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30여년 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김 동문과 헌법수호자 상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는 듯하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프로필

▲1948 경북 청도 출생 ▲1972 동국대 법과대 졸업 ▲1976 제 18회 사법시험 합격 ▲197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9 법무연수원 교수 ▲1995 사법연수원 교수 ▲199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200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5 법무부 차관 ▲現 헌법재판관

▶ 14명에서 계속

이상우(동문, 10만원) 이상익(동문, 2만원) 이성엽(동문, 10만원) 이승규(동문, 1만원) 이승진(동문, 2만5천원) 이윤규(서울/교수, 70만원) 이은주(스님, 1만원) 이종하(동문, 2만원) 이한주(서울/교수, 4만원) 인성스님(스님, 3만원) 장제이(동문, 2만원) 장원희(서울/교수, 50만원) 전용수(일반/기타, 10만원) 정연웅(동문, 5만원) 조준형(서울/교수, 50만원) 좋은상조(기업/재단, 500만원) 차홍기(동문, 2만원) 한국장학재단(일반/기타, 2928만7천원) 해군장학(기업/재단, 898만4천4백6십원) 흥탁보쌈(기업/재단, 10만원) 효수스님(스님, 2만원)

특정목적기금

감산사(사찰, 5만원) 강남옥(경주), 50만원) 강예원(일반/기타, 3천원) 강이일(경주병원/직원, 5천원) 강태원(서울/교수, 150만원) 강현성(일반/기타, 5천원) 강현숙(경주병원/직원, 3천원) 강현준(일반/기타, 5천원) 강형석(서울/직원, 50만원) 공영대(서울/교수, 100만원) 광희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강희(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겸(불교신도, 3천원) 김경은(일반/기타, 3천원) 김경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귀연(일반/기타, 3천원) 김대석(경주한방직원, 3천원) 김덕기(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명숙(일반/기타, 5천원) 김명순(불교신도, 3천원) 김미경(불교신도, 3천원) 김미녀(일반/기타, 3천원) 김미숙(불교신도, 5천원) 김병학(대학원/불교, 100만원) 김성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숙경(일반/기타, 5천원) 김순희(불교신도, 5천원) 김영남(포항병원/직원, 3천원) 김영옥(불교신도, 3천원) 김영진(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옥희(일반/기타, 5천원) 김윤정(동문, 200만원) 김은경(의료원직원, 3천원) 김자넌(일반/기타, 4만원) 김재홍(일반/기타, 3천원) 김경미(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경배(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정연(스님, 1만원) 김해중(경주병원/직원, 3천원) 김형준(불교신도, 3천원) 김혜숙(경주병원/직원, 5천원) 김혜정(동문, 3만원) 김호순(불교신도, 3천원) 김효주(경주병원/직원, 3천원) 대경스님(스님, 2만원) 도수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류경원(경주병원/직원, 3천원) 류길영(일반/기타, 10만원) 류길원(불교신도, 3천원) 병진스님(스님, 3천원) 모규숙(일반/기타, 3천원) 무운스님(스님, 1만원) 민노미(불교신도, 3천원) 박경숙(불교신도, 5천원) 박성주(경주병원/직원, 26

만원) 박용숙(불교신도, 3천원) 박재량(불교신도, 3천원) 박현미(경주병원/직원, 1만원) 배주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배충남(동문, 10만원) 범왕정사(사찰, 3만원) 보명스님(동문, 1만원) 서미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서옥순(기업/재단, 10만원) 서인주(불교신도, 3천원) 서정일(경주/교수, 3천원) 서중스님(스님, 5천원) 석유숙(일반/기타, 1만원) 성기봉(일반/기타, 3천원) 성미화(경주병원/직원, 3천원) 손명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손명희(동문, 20만원) 송미영(불교신도, 5천원) 송인호(경주병원/직원, 3천원) 승주스님(스님, 10만원) 신수진(경주병원/직원, 1만원) 신호갑(불교신도, 3천원) 신호철(불교신도, 5천원) 심용섭(동문, 2,100만원) 심익섭(서울/교수, 30만원) 안은진(일반/기타, 3천원) 양정우(경주병원/직원, 3천원) 연수현(스님, 1만원) 오용현(동문, 10만원) 원길배(불교신도, 1만원) 원용춘(학부모, 30만원) 월성원자력본부(기업/재단, 36만원) 윤선호(불교신도, 5천원) 이경미(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경선(경주/교수, 5천원) 이경순(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국환(서울/직원, 100만원) 이규옥(의료원직원, 2만원) 이도옥(경주/교수, 1만원) 이병윤(불교신도, 5,000만원) 이보영(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

선화(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세원(경주병원/직원, 1만원) 이소임(불교신도, 3천원) 이승원(불교신도, 3천원) 이승진(동문, 2만5천원) 이승호(불교신도, 5천원) 이여진(일반/기타, 5천원) 영자(불교신도, 3천원) 이유영(불교신도, 5천원) 이윤미(경주병원/직원, 3천원) 이은경(불교신도, 3천원) 이의수(서울/교수, 100만원) 이정환(불교신도, 3천원) 이주호(불교신도, 3천원) 이지영(불교신도, 3천원) 이태경(불교신도, 3천원) 이태규(불교신도, 5천원) 이태민(불교신도, 3천원) 이현욱(일반/기타, 3천원) 이현태(동문, 1만원) 이휘숙(불교신도, 3천원) 일휴스님(스님, 1만원) 임명준(일반/기타, 1만원) 임선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임성길(경주병원/직원, 1만원) 자성스님(스님, 1,000만원) 장경희(불교신도, 3천원) 장대식(불교신도, 3천원) 장정숙(불교신도, 5천원) 전준호(일반/기타, 3천원) 정각원(사찰, 328만원) 정도행(스님, 5천원) 정명숙(불교신도, 1만원) 정보현(일반/기타, 3천원) 정서희(일반/기타, 3천원) 정승채(동문, 10만원) 정영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정진아스님(스님, 1만원) 정현식(일반/기타, 5천원) 조화자(불교신도, 3만원) 조희영(서울/교수, 100만원) 주경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진병길(일반/기타, 1만원) 진선

희(경주병원/직원, 3천원) 최대해(경주병원/교수, 1만원) 최문진(경주병원/직원, 3천원) 최병로(학부모, 10만원) 최병완(동문, 5만원) 최은미(불교신도, 1만원) 최은주(일반/기타, 3천원) 최진식(경주병원/직원, 5만원) 최환호(서울/교수, 5만원) 최효순(불교신도, 3천원) 충무도치과(기업/재단, 10만원) 하경원(경주/교수, 5만원) 하윤경(경주병원/직원, 3천원) 한희원(서울/교수, 50만원) 허기홍(경주병원/직원, 3천원) 허우주(불교신도, 1만원) 허지인(불교신도, 1만원)

약학관건립기금 약정자명단 (2010년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강택진(서울/교수, 10만원) 공영대(서울/교수, 100만원) 김봉현(서울/교수, 100만원) 박장서(서울/교수, 50만원) 박재호(서울/교수, 100만원) 박정규(서울/교수, 100만원) 백용운(서울/교수, 60만원) 신재호(서울/교수, 100만원) 유국현(서울/교수, 100만원) 이영면(서울/교수, 200만원) 이의수(서울/교수, 100만원) 임중연(서울/교수, 50만원) 강경찬(서울/교수, 100만원) 전송희(서울/교수, 100만원) 최순열(서울/교수, 300만원) 한진수(서울/교수, 300만원) 한희원(서울/교수, 50만원)

강형석(서울/직원, 50만원) 김범중(서울/직원, 100만원) 김상년(서울/직원, 10만원) 김영민(서울/직원, 100만원) 김종배(서울/직원, 10만원) 김지우(서울/직원, 30만원) 김진환(서울/직원, 100만원) 노지혜(서울/직원, 20만원) 민정희(서울/직원, 10만원) 박상관(서울/직원, 100만원) 박진진(서울/직원, 100만원) 박현민(서울/직원, 20만원) 변승재(서울/직원, 50만원) 신기훈(서울/직원, 100만원) 양성웅(서울/직원, 50만원) 유광호(서울/직원, 100만원) 이국환(서울/직원, 100만원) 이권학(서울/직원, 100만원) 이태희(서울/직원, 50만원) 이선인(서울/직원, 250만원) 이재우(서울/직원, 50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0만원) 전한성(서울/직원, 10만원) 정은미(서울/직원, 30만원) 조용신(서울/직원, 100만원) 진혁진(서울/직원, 30만원) 최문규(서울/직원, 100만원) 최호진(서울/직원, 108만원) 하창구(서울/직원, 50만원) 허부강(서울/직원, 108만원) 민용기(의료원/교수, 1,000만원) 안병진(의료원/교수, 100만원) 이진호(의료원/교수, 500만원) 진원스님(경주/교수, 120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0만원) 동국대학교 대전동문회동문, 2,010만원) 박종윤(동문, 1,000만원) 김효분(일반/기타, 12만원)

학술 기획 - 대학가에 불고있는 '앱' 열풍 속으로

IT 산업의 새로운 메카, '앱스토어' 뜬다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아이폰 앱 강의 개설 운영 주목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응용프로그램)이 IT 산업의 새로운 총아(寵兒)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열풍에 최근 대학들도 가세하고 있다. 관련 학과에 애플리케이션 심화전공 과목을 개설하여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뤄 앱스토어에서 판매할 게임의 제작, 등록 판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충실대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출신 대학생 3명이 지난해 '블리스 소프트웨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를 창업해 CEO로 벤처업계에 발을 들여 놓기도 했다. 이처럼 애플리케이션의 열풍은 하드웨어에 국한(局限)된 국내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

아이폰 열풍에 앱시장도 성장

아이폰의 인기 속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혼동도 잇따르고 있다. 애플, 어플, 앱 등이 혼용(混用)돼 사용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줄인 앱이 맞는 표기이다.

'앱'이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즉 응용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에게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응용프로그램의 예로는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개발도구, 페인트 브러

쉬,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응용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기타 다른 지원프로그램들의 서비스를 사용한다. 응용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작업을 요청하거나 통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API라고 부른다.

활성화되는 모바일 앱 시장

앱스토어는 스마트폰에 탑재(搭載)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를 뜻하는 단어이다. 즉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의 준말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휴대폰에 탑재되는 게임·동영상·인터넷접속·음악재생·내비게이션·워드·엑셀 등의 콘텐츠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상 '모바일 콘텐츠 장터'를 의미한다. 2008년 7월 11일 애플이 스마트폰인 아이폰 3G를 출시하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아이폰 또는 아이팟 용 응용프로그램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후 애플 앱스토어가 성공을 거두자 구글·MS 등과 국내외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등이 앱스토어 열풍(熱風)에 동참했다.

앱스토어는 대형업체가 개발하고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개방형 장터로, 운영사에서 공개한 SDK(소프트웨어 개발키트), X code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을 전세계 아이폰 이용자에게 팔 수 있다. 개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등록하면 소비자는 무선통신에 접속하여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후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판매수익은 개발자와 운영사가 7:3 정도의 비율로 분배하며, 소비자들은 무료 또는 유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게임멀티공학과도 강의 개설

IT 산업의 트렌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이 대학가에도 그대로 투영(投影)되고 있다. 충실대 컴퓨터공학과와 경우 지난 해 여름방학을 비롯해 2학기 정규과목 강좌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특강'을 개설, 운영중이다. 또한 아주대 미디어학부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배우기 열풍이 확산돼 지난해 '미디어 집중교육 1, 2'라는 강의를 통해 아이폰 프로그래밍과 애플리케이션 제작 방법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아주대의 경우 이번 강의를 통해 개발된 골프게임 'Hole in'은 이미 미국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등록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열풍에 함유해 지난해 7월부터 아이폰 용 게임 애플리케이션 강의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 학기에는 25명의 학생이 7개 팀을 이뤄 강의에 참여했다.

시험적으로 지난학기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3개 팀을 선정해 지금까지 2개팀의 애플리케이션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다. 또한 나머지 한 개 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역시 4월 중으로 앱스토어에 등록할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이번 교과 과정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일환(一環)인 '콘텐츠 벨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장비 및 MAC 컴퓨터가 설치된 실습실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도 아까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개발한 게임이 앱스토어에 등록, 판매되어 나오는 수익금은 학생들에게 배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gu.edu

연구소 탐방

<2> Lotus 기능성식품소재연구소

'연(蓮)', 기능성 소재로 재탄생하다 각종 천연물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

사람들은 '연(蓮)'이라고 하면 흔히 불교를 떠올린다. 연은 진흙, 즉 속세의 더러움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淸淨)함을 지닌다는 점에서 불교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연은 단순히 불교를 상징하는 꽃에만 국한(局限)되지 않는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건강, 미용에 좋다고 밝혀진 연의 효능들이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연이 '기능성 식품소재'로 각광(脚光)받기 시작하면서 2007년 3월, 우리대학 내에도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한 연구소가 신설(新設)됐다. 바로 신한승 소장(식품공학)과 연구원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Lotus 기능성 식품 소재 연구소'다. 'Lotus 기능성식품소재연구소'는 식물성 소재를 기능성 식품 및 소재로 연구·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設立)됐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Lotus 기능성식품소재연구소'는 기능성 신소재의 체내 효용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는 연구와 기능성 식품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Lotus 연구소 신한승(식품공학) 소장

한편 연을 뜻하는 'Lotus'가 들어가 있는 연구소 명칭도 불교의 상징인 '연'의 기능성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한다. 신한승 소장은 "우리대학이 불교종립대인만큼 불교의 상징인 '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Lotus 기능성식품소재연구소'에서는 '연의 향산화 기능을 활용한 향산화음료 개발', '백련을 이용한 발암물질 생성억제 기능성소스 개발' 등, 연 속에 포함된 성분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연의 과학적인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신한승 소장의 논문이 SCI급 학회지인 'Food Science & Biotechnology'에 실리면서 연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立證)하기도 했다.

하지만 'Lotus 기능성식품소재연구소'라고 해서 연에 관한 연구에만 매진(邁進)하는 것은 아니다. 연 이외의 천연물 중에서 향산화물질이나 면역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물질, 혹은 피부에 좋은 물질을 찾아내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이 아닌 다른 천연물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갈매보리수나무 활용 고부가가치 식품 및 소재개발', '올리브 잎을 이용한 천연항균제 및 기능성식품 개발' 등이 있다.

'Lotus 기능성식품소재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경에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 산하(傘下)의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응용한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천연물을 발굴해서 기능성소재로 개발하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신한승 소장. 각종 병마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기능성식품소재연구를 선도할 'Lotus 기능성 식품소재연구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2010년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내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000(학기당 \$25,000)을 3년에 걸쳐 최대 4회(학기) 지원(등록금 및 체재비 포함)
※ 등록금 및 체재비는 지원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금액으로 함

2. 지원 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

가. 본교 학부졸업생 및 2010년 8월 졸업예정자(경주캠퍼스 포함)
나. 美 US NEWS & WORLD REPORT (www.usnews.com)의 미국 내 분야별 대학원 전공 순위가 5위 이내인 대학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2010년 9월(가을학기) 입학예정인 자(즉, Admission을 취득한 자) (석사과정 또는 MBA/로스쿨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 분야 : Engineering / Medicine / Education / Social Science & Humanities / Public Affairs / Fine Arts / The Science / Law / Business
- 총 9개 분야의 세부전공학과의 순위가 5위 이내인 학과

3. 선발인원 : 0 명

4. 선발방법

- 성적(학부/대학원 평점 및 CBT/GRE 점수) + 면접(전공, 영어 구술시험)
※ CBT 점수 외 IBT 성적도 제출 가능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전공 및 영어 구술시험)

5. 제출서류

가.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장학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 예정서(해당자에 한함) 및 지원 확인서 1부.
다. 본교(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라. CBT(또는 IBT), GRE 성적표 각 1부(유효기간 이내 성적표(CBT-2년, GRE-5년) 제출)
마.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바. 2인 이상의 추천서(소정 양식)
사. 지원 대상학교의 전공 평가순위 자료(www.usnews.com 참조)

6. 접수처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본관 3층)

7. 선발일정

가. 접수 : 2010.4.19(월) ~ 4.22(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4.27(화)
다. 면접전형 : 2010.5.4(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0.5.13(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시 공지 예정임

8. 기타 유의사항

가. 장학생은 매년 학기별 '학위취득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양식은 추후공지)
나. 박사 학위 미 취득 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최종선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선발자는 매학기 성적증명서를 학기종료 직후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라. 매학기 백분위 환산점수가 87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마. 박사 학위 취득 기간은 최초 입학년도부터 총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 연도 입학 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사. 수혜 기간 중 소속 학교에서 기타 장학금(RA, TA 등)을 수혜 받을 경우 체재비만을 지급함(RA, TA 취득 여부를 매학기 학위취득경과보고서를 통하여 보고)
아. 지원 대학 평가순위는 美 US News & World Report 의 가장 최근 세부 전공순위만을 참고하여야 함.

9. 문의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02-2260-3053, job@dongguk.edu)

화제의 책

재벌 부조리에 대한 일침, '삼성을 생각한다'



삼성을 생각한다

지은이 김용철
펴낸곳 사회평론
22,000 원 / 476 쪽

2007년 한국 사회는 떠들썩했다. 한국 최고 기업이라 칭송받던 삼성의 비리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일명 '떡값'이라 불린 불법 로비 및 삼성 비자금 등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삼성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의 비리를 알린 김용철 변호사의 바람과는 달리 삼성은 일부 소수의 법

적 책임(責任)만을 졌을 뿐이다. 이에 지난 2월 김용철 변호사는 양심고백 당시의 상황 및 삼성의 비리를 알리고자 다시 한번 삼성의 비리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이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2007년 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 김용철 변호사의 이야기다. 책은 저자가 양심고백 당시 공개한 내용들과 김 변호사가 삼성의 법무팀에서 7년여 간 일하면서 보고 겪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 입사를 결심하기 직전 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용철 변호사는 법조계의 낮은 관행에 회의를 느낀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내가 느끼기에 부장검사라는 자리가 썩을 부(腐), 내장 장(腸) 같았다.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뒷사람의 뜻을 받들어 후배들의 수사를 막는 자리처럼 여겨졌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검찰에 사표를 낸다. 이후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칭송받던 '삼성'에 입사하던 당시 그는 '삼성'에서 글로벌 경영 기법을 배우길 원했다. 하지만 삼성에 입사한 그는 삼성의 여러 경영 비리를 목격하면서 대기업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 환상이었다고 한탄한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수많은 비리를 목격했던 그의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초법적인 힘을 행사해 왔음을 지적한다. 한편, '삼성을 생각한다'에는 김용철 변호사를 도와 삼성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힘쓴 조력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곳곳에 등장한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및 김용철 변호사의 정신적 조력자 한겨레 신문 기자 정석구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몰심양면으로 도왔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던 단체다. 정석구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의 감시에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보내던 김용철 변호사에게 선뜻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김용철 변호사에게 사제단을 소개해 준 것 역시 정석구다. 2010년 대한민국, 비단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현실상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을 통해 경제 민주화의 과정으로 가는 길과 한국경제가 앞으로 도모해야 할 올바른 방향에 관한 지침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이주의 책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겨울의 유산'



겨울의 유산

지은이 다치하라 마사키, 김형숙 역
펴낸곳 한결음 더
11,000 원 / 296 쪽

우리대학 출판부(한결음 더)에서 지난 해 1월 출판된 '겨울의 유산'이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에서 선정(選定)하는 '2009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됐다. 올해의 불서로 선정된 책은 총 10권으로 우수상에 선정된 도서는 '간다라에서 만난 부처', '겨울의 유산', '불교해석학 연구'이다. '2009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이 책들

은 앞으로 불교전문서점을 비롯해 각 사찰 도서관, 본말사 등에서 1년간 홍보될 예정이다. '겨울의 유산'은 '행복감과 무상감 사이(유년시대)' '무량사 토담길(소년시대)' '건축사 산문 앞'의 세 편으로 이루어졌다. 유년시절을 그린 '행복감과 무상감 사이'는 주인공이 여섯 살일 때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가 승려로 있는 무량사의 선방에 취학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행복감과 무상감 사이'에는 아버지의 자결로 책 전체에 흐르는 '한없는 무상감'이 시작된다. '무량사 토담길'은 유년시절에 이어 1933년 안동 심상소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 주인공 '나'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많은 일을 겪게 된다. 외숙부에게 보내진 후 1년 8개월을 혼자 지내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무량사의 무용 송계 큰스님, 허백당 청안과의 인연을 만들게 된다. 임제선종을 옷으로 입고 있는 이들 선사로부터 정서와 윤리의 모본을 배우고, 아버지의 그림자와의 끊임없는 교류가 '나'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형성한다.

책의 마지막 편인 '건축사 산문 앞'에는 소년시대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이에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였고, 한 살 연하의 오네모도 미쓰오와 결혼하였다. 작품 속에는 아내를 얻을 때까지의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 산월이 가까워진 그녀가 출산하기까지의 과정만이 상세하게 쓰여 있다. 이러한 속세의 생활 한편으로, 건축사에서 그의 선 수행이 중심이 되어 기술되어 있다. 유년시절로부터의 한 줄기 굵은 맥이 그의 삶을 지탱(支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떠나고 어머니에게도 버려졌던 '나'는 혼혈의 문제 또한 안고 있기에, 고독한 삶의 뒤안길엔 무한과 무상이 드러난다. 자전적 소설 '겨울의 유산'에는 조선과 일본의 혼혈자로 어린 시절 가족의 해체와 절대 고독을 경험했지만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따뜻하게 추억했던 다치하라 마사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의 자전적 소설을 통해 고독과 무상을 뛰어넘는 치열한 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윤재웅 교수의 독서산책

부드러운 바늘



시프트 Shift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

지은이 오세훈
펴낸곳 리더스북
12,000원 / 267쪽

최근에, 대학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K대 학 3학년 김예슬양의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찡찡했던 기억이 있다. '국가-기업-대학-학생'으로 이어지는 생존 방식의 모순된 고리에 대한 항변. 명문장은 아니나 마음을 울리는 글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트랙을 좇아라 달릴 뿐이라는 그 섬뜩한 발견 앞에서 대자보의 주인공은 처절하게 좌절한다. 그리고는 씩씩하게 일어서서 선언한다. 적들을 향한 인간선언! 물론 대학도 그 '적들' 속에 포함된다.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의 전환이다. 그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창의적이고 용감하다. 그러면 된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원칙이 이런 방식이라면 청년의 내일은 밝다.

#1. 대학 근처에 원룸이 있다. (빈 방 있음)이라고 써 붙였다. 오래도록 세가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살았던 사람은 모두 첫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쳤더니 금세 세가 나갔다.

#2.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에서의 금연 경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 "우리 항공기에는 여러분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좌석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셔서 비행기 날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영화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즐거워한다.

#3. 최근 20개 대기업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은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일류대학 출신도 아니었다. 스펙도 뛰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이 경험한 '조폭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청년이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관에 칼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조폭 출신 장애인이었다. 힘도 세고 자존심도 강한 그를 어떤 봉사자도 친절하게 대할 수 없었다. 모두가 복지관 봉사를 포기해야만 했다. 청년은 복지관에서 봉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접고 불행한 장애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올인했다. 마침내 그 장애인과 마음을 틀 수 있었고 그곳에서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자신의 면접시간을 흥미롭게 디자인한 이 이야기가 20개 기업의 면접관들을 모두 감동시켰다.

이 사례들은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는 저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이 제품의 기술적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관점이다. 저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앤 롤링의 1년 인세가 삼성전자의 1년 수출총액을 넘어선다는 통계자료를 보여준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물의 영혼"이라는 애플사 CEO 스티브 잡스의 금언을 인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젊은이들을 위한 책을 출간했다. 신본, 정치적 색채, 홍보용 멘트 신경쓰지 말고 읽자. 구석구석, 사례 하나하나 실제 삶에 도움이 된다. 현학과 허례가 없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나긋도 생각의 핵심은 날카롭다. 미래사회를 향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조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다. 현대 쉽다. 실전 사례도 많다. 부드러운 바늘을 경험해보자.

(국어교육학과 교수)

201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훈련 대상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지역 1~6년차 예비군 ('2009년도 ~ '2004년도 전역자)

2. 훈련 일정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일정	4.13(화)	4.14(수)	4.27(화)	4.28(수)	4.29(목)	4.30(금)	6.18(금)
대상	-법과대 -이과대 -경주캠퍼스	-사과대 -예술대	-건축(국)학전공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기계/토목과 -전기공학과 -생명화학과 -화학 생물 공학과	-전자공학과 -사회 환경 시스템공학과 -사범대	-불교대 -산업시스템 공학과 -정보통신공학 전공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시스템 -교직원	-경영대	-대학원 -문과대 -영상미디어대

※각 단과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통합되거나 변경된 대학 및 학과는 입학 당시의 대학 또는 학과의 훈련 일정에 참석하면 됩니다

3. 훈련 장소 : 56사단 219연대 중로 · 중구 훈련장

4.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등)

6. 참고 및 유의 사항
가. 교육훈련은 09:00에 시작하여 18:00에 훈련 종료

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또는 704번 버스타승(08:30 이전까지 버스 탑승:부대 지연도 착자 입소불가)

※ 지하철과 버스 환승제도 시행에 따라 훈련 전용버스 미 운행

다. 훈련종료 후 국방부에서 훈련보상비(식대비 및 교통비:9,000원) 지급

※ 훈련 간 학생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학교에서 중식지원

라.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마. 예비군복 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바. 본인 훈련 일정이 아닌 날에 훈련참석시 훈련 미 인정

사. 기타 훈련관련 개인명단 확인 등 상담 필요시 예비군 연대본부 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자제 ***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열공국수 무료제공 안내

중간고사시 학우여러분들을 위하여 잔치국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일 시 : 2010. 4. 19(월)~21(수),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 장 소 : 상록원2층 학생식당



생활협동조합



전영일
건축공학부 교수

달하나 천강에

지속가능 캠퍼스 개발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 각종 질환이 증가하고, 어떤 나라는 나라 자체가 송두리째 바다에 잠기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이제 '선진국' 한 국사회는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할 때이지만, 서울 도심의 동국대학교도 지속가능 캠퍼스개발로 글로벌교육을 실천할 때이다.

비 온 뒤 돌계단 입구에서 수많은 지렁이가 피약벌에 말라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에 마음이 몹시 상한다.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지렁이. 다윈도 가장 공들인 연구대상이 바로 지렁이였고, "지렁이처럼 중요한 동물은 없다"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성 방부제를 잔뜩 바른 나무 바닥재가 캠퍼스 여기저기 늘어난 건다. 그 독성이 빗물에 녹으면 지하 동물은 전멸(全滅)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복층유리창은 벽체보다 6~7 배나 빨리 열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캠퍼스개발은 외견상 유리외벽 늘이기와 다름 없다. 유리외벽의 엄청난 에너지소비는 화석연료사용을 늘리고, 탄소 방출량과 지구온난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유럽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 도심 자가용 통행을 없애거나, 엄청난 도심진입비를 부과(賦課)하는 도시들이 많다. 도심주차를 아예 없애거나, 자동차 도로 폭을 좁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버스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대도시 소재 대학들은 엄청난 주차료를 부과하여 캠퍼스주차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캠퍼스에선 오늘도 쿵쾅거리며 지하주차장이 준비되고 있다. 이미 있었던 주차장도 폐쇄하는 판에 21세기 환경세기에 세계 최고밀도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사대문 안 대학에서 암반 뚫어 웬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는가? 돈 없어서 친환경 못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좋은 교육을 위하여 대학은 학생을 진정으로 대해야한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대학재정을 튼실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발소음 속에서 정그리며 다니는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를 (다들)자동차,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배기가스를 뿜으니 숨 쉬기조차 어렵다. 과연 주차장이 없어져 간간히 긴급 전기차량만 보이고, 모든 유리창과 외벽엔 차양이 그리고 바닥포장은 제거되어 지하수위가 올라오고 빗물은 재활용되며, 동대 구성원 모두 지하철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지속가능캠퍼스'를 그리는 일은 각박한 모더니즘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한 이상주의적 코스모폴리탄의 한낱 백일몽에 불과한 일일까?

만평



동대신문 60주년, 열정의 촛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보리수

마성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책

인류의 지식은 문자로 기록되어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된다. 기록문화의 꽃은 바로 책이다. 그래서 책은 온갖 지식의 보배 창고라고 부른다. 인류가 터득한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책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상징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대학의 평가가 달라진다.

도서관에 특정 분야의 책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학문적 전통이 축적(蓄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학문은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의 학문 연구도 마찬가지다. 학문 활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분야의 자료 수집에 서부터 시작된다. 그 분야의 자료를 얼마나

많이 섭렵하느냐에 따라 학문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그 많은 자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도서관이 그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학문 활동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서관은 학문 활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도서관에 보관 중인 책 중에는 훼손(毀損)된 것이 많다. 누군가가 도서관에서 대출(貸出)받은 책을 자기 책처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책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어떤 책은 이미 절판(絶版)되어 다시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

들의 손을 거친 고서를 보더라도 소장자의 낙관이나 도장은 찍혀 있지만 낙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그만큼 책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도서관의 책을 훼손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

도서관의 책은 조심스럽게 보고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자료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도서관의 장서는 미래의 세대들이 이용하게 될 공공의 자산이다. 그것은 우리 세대에서 잘 활용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주어야 할 유산인 것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들의 자각(自覺)이 요구된다.



동문칼럼

이진훈
화학과 76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과학수사의 요람(搖籃)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1955년 첫발을 내디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55년이 흐른 지금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수사의 요람으로 성장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 중심에 서서 오로지 과학적인 진실만을 추구하고 공정한 자세로 30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 할 시기는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가 멀다하지 않고 일어나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다. 이를 보면서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나도 젊은 청춘을 불태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과학수사를 책임지는 연구소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각색의 엄청난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람은 죽더라도 '이유가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증거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수사로 정확한 사건 규명이 이루어져서 '한사

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과수와 함께한 30년의 세월이 오로지 과학수사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보니 그러한 생각들이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업 의식으로 몸에 다가왔던 것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80년대, 90년대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마 아동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조선대 총학생회장 변사 사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한항공기 괄 추락사고,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크고 작은 국가적인 사건 및 시국사건, 안전사고 등이 많아 암울한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양상 또한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사건 해결을 위한 과학수사의 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

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감정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내 유일의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동안 승려문 방화사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김길태 강간살인사건 과 같은 굵직한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해결에 앞장 서 왔으며, 21세기를 기점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지금의 국과수는 날로 기능화되고 정교해지는 범죄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범죄없는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와 같은 사법환경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과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공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공명정대한 감정기관으로 거듭날 때 국과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밥도 안 사 주면서 아는 척만 하는 선배들 조심해,
진짜 피곤한 인종들이거든,,

리얼 캠퍼스 시트콤

소리 질러

정체불명의 선배들이 나를 부른다.
“살고 싶다면 가입하라.”

신세대 동문 작가 아홉 명이
새내기 후배들에게 대학생활 노하우를 선물한다.



변형 신국판 | 262쪽 | 8,000원

손흥규 소설가 2001 작가세계신인상, 박진규 소설가 2005 문학동네소설상, 홍석진 극작가 2008 옥랑회극상, 남상욱 극작가 2004 대산대학문학상
윤고은 소설가 2008 한겨레문학상, 신현대 소설가 2001 세계일보 신춘문예, 정영호 시인 2009 서울신문 신춘문예, 최문에 극작가 2009 동아일보 신춘문예, 임세화 소설가 2007 창비신인소설상



시론

삼성 이진희 회장의 경영복귀를 경계하며

송일호
경제학과 교수

지난 해 8월 대법원에서 조세 포탈(通脫)과 배임(背任)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삼성그룹의 이진희 전 회장이 삼성기공을 명분삼아 23개월만에 경영일선에 복귀를 선언했다.

그동안 비자금 조성과 차명계좌, 뇌물수수 등으로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섰던 그의 복귀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삼성은 혁신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 창조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진희 회장의 복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복귀와 함께 황제경영의 중심에 있었던 옛 전략기획실의 역할을 할 새로운 이름의 그룹 컨트론타워 등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삼성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 당시부터 비서실을 중심으로 그룹의 모든 권한이 집중(集中)되어 왔다. 이후 시대에 따라 비서실에서 구조조정본부로 그리고 또다시 전략기

획실로 명패만 바뀌 달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해왔던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그룹 컨트론타워로부터 야기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이 회장과 함께 퇴진했던 가신그룹의 재등장도 현안으로 부상(浮上)했다. 그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비롯한 이 회장 지배체제의 편법상속 논란의 주범으로 인식돼 여론의 질책을 받았으며 결국 삼성 특검과 에버랜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들 가신그룹 출신의 사람들이 혁신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작금(昨今)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들인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옛 전략기획실의 중심으로 이 회장을 떠받들었던 참모조직의 부활이 삼성의 의사결정을 흐트리고 결국 삼성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개혁시민연대 등 이 회장의 경영복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 가신그룹이 폐쇄적이고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삼성은 정말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경영주가 편법 경영권 승계나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조세포탈이나 배임혐의로 의심 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공헌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선두 기업인 삼성이 이끌어 가야할 기업문화를 상당부분 훼손시킨 혐의에 대해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 이진희 회장의 복귀가 그의 인생에 있어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마지막 시도라면 몰라도 삼성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재등장이란 명칭조차 사냥하고 싶은 것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설

동국인의 진정한 '아고라'를 꿈꾼다

오는 15일은 동대신문이 창간(創刊)된 지 만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리고 이번 호로 동대신문은 지령(紙齡) 1491호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학신문사들 중 이만한 연륜과 지평(地平)을 가진 대학신문은 그리 많지 않다. 60주년을 맞이하며 뿌듯한 자긍심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6.25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동대신문은 진리와 자유, 학문과 지성의 드높은 가치를 들고 첫 호를 발행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대신문은 고난과 시련의 한국현대사를 겪어오면서 대학이 서야할 역사적 중심을 잃지 않도록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를 지켜왔다.

동대신문은 대학의 정의를 사회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으며, 독재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저항해왔다. 동대신문의 이러한 정신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불교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대학이 언제나 사회정의의 편에서 학문과 지성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을 이뤘다. 이처럼 동대신문은 시대의 고난을 동국인들과 함께하면서 안으로는 학풍의 조성(조성)과 대학문화의 창달(暢達)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지난 세월동안 동대신문은 동국대 104년 역사를 낱알이 기록한다는 점에서 학내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모든 동국인들이 각종 학술 주제와 학내외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는 '아고라(agora)'가 될 수 있도록 학술, 대학 문화 등의 차원에서 지면을 확대하고 개편(改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창간 60주년의 의미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자족(自足)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동대신문도 시대의 조류(潮流)를 따르지 못해 과거의 구태연한 형식에만 얽매어 일부 독자들에게 외면당해오기도 했다. 오늘날 많은 대학신문들이 고민하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打開)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면서, 동대신문이 진정한 동국인들의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자성(自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뉴미디어시대의 도래(到來)로 인해, 기성 신문들뿐만 아니라 대학신문들 또한 위기에 처해있다.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들의 출현은 점차 독자와 신문 매체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동대신문도 이러한 위기를 의식해 과거 종이신문만으로 승부하던, 대학을 대표하는 매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인터넷 신문, 동국미디어센터 출범 등으로 변화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동대신문의 위기라면 이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뉴미디어에 대한 대학신문의 발 빠른 대응과 동국인을 위한 '아고라' 역할, 필요한 전문지식(학술·사상) 제공 등에 대한 요구라고 해석하고 싶다.

앞으로 동대신문은 '대학언론의 위기'라는 말이 거론되지 않도록 독자의 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대학 사회의 '아고라'로 자리 잡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실험정신과 창조성을 무기로 기성 언론과는 다르게 사회와 대학을 비추기 위해 발 빠르게 동약을 누빌 것이다.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 동대신문은 '대중언론 창출 그 한걸음'을 위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피고 있는 과정에 있다. 진정으로 동국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동대신문 기자들은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가 지적한 부분을 겸허(謙虛)하게 받아들이고 단점을 극복하는 동대신문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叱責)과 격려(激勵)를 기대한다.



메아리

재갈 물린 슈퍼맨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현대사회의 슈퍼맨은 정치와 종교의 리더를 누르고 연예인들이 차지했다.' 현 대중 문화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 '대중의 영웅' 책의 저자 움베르토 에코는 대중문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정치인보다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몇 해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배우 스티븐 리 수상소감을 명문 없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대신하면서 대중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았다. ▲지난 5일 KBS 임원회의에서 김인규 사장이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키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指摘)을 한 후 이 내용이 담긴 결정사항이 제작현장에 보내져 논

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3일'에서 개구무먼 김미화 씨가 내레이터를 맡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KBS 김인규 사장의 지적에 따라 임원회의에서는 '내레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내레이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내레이터 선정위원회' 구성까지 논의됐다. ▲지난 2008년 방송된 김제동을 비롯해 MB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연예인들은 KBS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通報)를 받았다. 김미화 씨는 지난해 12월 방송됐던 '환경스페셜'에서 내레이터를 맡아 정감 있고 효과적인 목소리라고 평가를 받았다. KBS가 그러한 그녀를 어떠한 기준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낙인(烙印)찍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KBS가 연예인들의 정치적 성향(性向)을 제대로 출연 여부를 가능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듯 '진보적 성향 출연자 숙아내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 어떤 국회의원 열댓 명이 열렬히 운동하는 것보다 연예인의 사회 참여가 훨씬 더 큰 대중적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행동에 신중해야 하는 연예인이지만, 명문 없는 이라크 반전 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한 스티븐 리 같이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잣대로 방송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연예인에게 소신 있는 발언을 바라는 건, 무리인 듯하다. 연예인은 방송인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이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KBS의 태도는 현 정권과 정치적 성향이 동일하지 않은 이들은 더 이상 얼굴도, 목소리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발언과 같다. 우리 사회 연예인들은 재갈 물린 슈퍼맨과 다름없는 것 같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정웅재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제25기 모집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개발과 투자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교육프로그램"인 동국대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제25기에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리더(CEO)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교육구성

- 교육기간: 2010. 5. 11 ~ 8. 25 (주 2회 16주, 4개월)
- 교육인원: 00명(서류심사에 의한 선발)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18시 30분 ~ 21시 30분)
- 등록금: 485만원

교육내용

-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개발 및 금융
- 가치창조를 위한 투자사례 및 연구
- 해외 부동산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및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소정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한 자는 최고학위기 수여
- RECCEO자격인증서 수여
- 원우회 조직을 적극 지원하며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각 기수별 원우회 및 총 동문회 활동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교육특징

- 해외 부동산 연수(일본 등)
- 부동산 그룹 Study
- 부동산 개발 사례 연구
- 문화 연계제 및 워크숍
- 부부특강(재테크, 인문학 등)
- 테마부동산 탐방(졸업여행)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1부
- 원서교부 방법: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온라인: www.dgurecea.com 접속 후 입학 지원
 - 이메일: bgw0817@dongguk.edu
 -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연구실 담당자 앞 (우100-716)

문의처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연구실)
- TEL: 02-2260-8574 / 02-2260-8572 FAX: 02-2263-8576
- 홈페이지: http://www.dgurecea.com

*동국대학교 동문출신 20%할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금주의 식단 ●●●

월(4/12)	순만두국(2500)/굴소스볶음밥(2000)/피자돈가스(3000)/낙지물수프(2500)
화(4/13)	살랑탕(2500)/참치김치덮밥(2200)/햄박스테이크(3000)/날치알수프(2500)
수(4/14)	부대찌개(2500)/푸삼불고기덮밥(2200)/돈가스(2500)/닭곰탕(2500)
목(4/15)	순두부찌개(2500)/테리야키치킨덮밥(2200)/새우가스(3000)/쇠고기국밥(2500)
금(4/16)	해물된장찌개(2500)/김치볶음밥(2200)/치킨가스(2500)/콩나물수프(2500)
월(4/12)	스팸김치찌개(2500)/새우볶음밥(2200)/치킨가스(2500)/치즈불닭(3000)
화(4/13)	바치락된장찌개(3000)/참치비빔밥(2200)/모듬가스(3000)/콩나물수프(2500)
수(4/14)	일식해물수프(2800)/제육비빔밥(2200)/피자돈가스(3000)/우거지김치(3000)
목(4/15)	닭곰탕(2500)/오므라이스(2200)/돈가스(2500)/불고기수프(2800)
금(4/16)	김치찌개수프(2500)/푸삼불고기(2200)/새우가스(3000)/만두전골(2500)
월(4/12)	새우가스(3000)/김치찌개(2200)
화(4/13)	돈가스(2500)/날치알김치비빔밥(2200)
수(4/14)	고구마돈가스(3000)/매운오삼볶음(2200)
목(4/15)	카레돈가스(2800)/쇠고기당면볶음(2200)
금(4/16)	치즈돈가스(3000)/새우볶음밥(2200)/짜장소스(2200)
월(4/12)	치킨굴소스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제육떡볶이(2200)
화(4/13)	불고기생채비빔밥(2200)/돈육김치찌개(2500)/허이라이스(2000)
수(4/14)	닭갈비김치덮밥(2200)/오징어볶음(2500)/치즈카레볶음(2200)
목(4/15)	제육덮밥(2200)/돈가스(2500)/해물당면볶음(2200)
금(4/16)	날치알새싹비빔밥(2200)/갈비탕(3000)/김치볶음밥(2200)



꽃지짐 흐드러진 성북동 순례길에서 마주친 ‘참 나(眞我)’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다. 봄이 왔건만, 도무지 봄 같지 않다. 예년 같으면 캠퍼스 곳곳마다 온갖 꽃들이 앞을 다투며 피어나 설레는 봄의 향연을 맛볼 수 있었지만, 드문드문 핀 꽃들은 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봄은 아직인데 ‘벌써 4월인가’하며 허무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봄 향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생활에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곳은 바로 길상사를 향해 걸어가는 ‘성북동 순례(巡禮)길’이다. 불거리와 생각 거리를 모두 안겨주는 ‘성북동 순례길’ 위에 발을 올려 놓아보자.

참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성북동 순례길

‘순례’란 종교상의 성지나 영장(靈場)을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여행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정을 뜻한다. 일본의 작은 섬 시코쿠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88개의 절을 걸어서 순례할 수 있는 ‘오헨로(お遍路)’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오헨로’와 같이 1200km에 달하는 긴 거리는 아니지만, 성북동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좇으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충분한, 아름다운 길이 길상사를 향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다. 길상사가 자리 잡은 성북동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있어 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즐겁다.

꽃꽂았던 만해스님의 자취 서린 심우장에서 나를 찾다

법정 스님이 삶의 끝자락에서 머물렀던 서울 성북동 길상사까지 가는 순례길은 유려한 곡선이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 역에서 시작되는 첫 발걸음부터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골목길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꼬불꼬불해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길상사까지 가는 길에는 사연이 있는 고택이 있다. 이는 바로 우리대학의 전신인 명진학교 회 졸업생이었던 만해(卍海) 한용운이 한때 거거하며 원고를 썼던 ‘심우장(尋牛莊)’이다. 성북동 돌계단을 가파르게 올라가면 멋지게 휘어진 소나무가 있는 집이 보이는데, 그 곳이 바로 심우장이다. 심우장은 남향을 선호하는 한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인데 독립 운동가였던 그가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의 북향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당 너머 한 눈에 들어오는 성북동 전경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마당의 향나무는 만해가 손수 심었다고 한다. 그곳에 심어진 목련은 봄을 알려주는 듯 봉우리를 머금고 있었다.

차(茶)와 문학의 향기 어우러진 월북작가 이태준 저택

길상사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이 힘들다고 느껴질 땐 ‘수정 산방’에 들러 한숨 쉬었다 가는 것이 좋다. 김유정, 정지용 등과 더불어 모더니즘 문학을 이끈 고(故) 이태준 작가의 저택을 개조해 만든 전통 찻집 ‘수연산방’은 짙은 전통차(傳統茶)와 문학의 향기가 진동한다.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풀벌레 우는 작은 마당과 아담한 한옥이 나타나는데 봄을 나타내듯 진분홍빛의 화려한 진달래가 마당 곳곳에 피어있다. 전통 찻집 ‘수정 산방’ 내에는 삼면이 모두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누마루가 있는데, 고 이태준 작가가 글을 쓰거나 친구들을 만났던 곳으로 제일 인기가 좋은 자리이다. 이곳에선 전통차를 즐기며 화사하게 핀 꽃과 초록으로 물든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법정스님 떠나신 길상사에도 봄은 어김없이

약 1시간의 순례길 코스를 거쳐 도착한 길상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소나무 밑에 서 무소유(無所有)를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길상사는 원래 ‘요정 정치의 현장’이라 불렸던 대원각이었다. 법정 스님의 대표 산문집 ‘무소유’를 읽고 감명 받은 대원각 소유주 고 김영환 보살이 스님에게 시주, 절을 세워 주기를 청하면서 길상사가 탄생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이 입적한 후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이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침묵이 흐르는 사찰로 남아있었다. 봄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된 햇노란 빛의 영춘화(迎春花)는 사찰 내 순례길 주변에 곱게 피어 있다.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햇노란 순례 길을 따라 사찰을 맴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소유의 평온이 흘렀다. 그들은 발끝의 힘을 빼고 모두 가볍게 날아갈 듯 걷고 있었다.

성북동 순례길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쁨과 느낌의 미학(美學)을 배울 수 있다. 더불어 따스한 봄의 기운을 눈으로도 즐길 수 있다. 일본 시코쿠의 오헨로 88개의 순례길 못지 않은 성북동 순례길은 지나치게 빠른 일상의 속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가르침의 길이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봄날 걷기 좋은 성북동 순례길 (약 1시간 30분 코스)

▲한성대 입구(삼선교) 역 6번 출구 → ▲심우장(6번 출구에서 이어지는 성북동 길을 따라 성북초등학교 옆길까지 10분 정도를 걸으면 ‘심우장 가는 길’이라는 팻말이 나온다) → ▲수연산방(심우장에서부터 걸어서 10분, 금왕둔가스 근처) → ▲길상사(쉽게 가는 방법: 1111, 2112 마을버스를 타고 홍익 중·고등학교 앞에서 하차, 길상사 안내 표시에 따라 15분정도 걸어 올라가면 길상사를

알리는 간판이 보인다. 갈릴길마다 길상사 안내 표지가 잘 마련되어있으니 길을 헤맬 염려는 거의 없다) → 한성대 입구(삼선교) 역

①노란 영춘화가 만발한 순례길 ②길상사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꽃 ③법정스님의 말씀이 나무마다 걸려있는 길상사 내 순례길 ④만해 한용운이 거거한 심우장의 모습 ⑤ 흥매화가 만개한 수정산방.

사진=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